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월 19일)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법회 · 행사 취소 잇달아 "사찰內 예방교육 필요"

## 신종코로나 사태, 불교계 영향 '일파만파'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신종코로나 국내 확산으로 인해 불교계 각종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행사의 취소와 함께 일선 사찰과 불자 개개인의 위생의식 고취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에서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은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다. 불교계는 행사 취소 및 연기를 비롯해 사찰 법회시 신도들의 활동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먼저 신종코로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 조계사서 열린 정초기도에서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법문했다. 원행 스님은 "업이라는 것은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는데 혼자 짓는 게 있고 여럿이 짓는 게 있다. 공업으로 바이러스 등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같이 겪고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도 2월 4일 장관 주관 하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국내 7대 종교지도자를 초청,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템플스테이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전국 운영사찰에 감염증 대비 지침을 내렸다.

### 대중 운집 행사 일정 조정

신종 코로나 확산에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4일 입춘 기도를 맞아 일주문에서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조계사는 이후 2월 16일 동안거 생명살림기도법회를 전격 취소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길상사가 2월 1일 신년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법회를 취소했다.

지역에서도 행사 취소와 연기가 줄을 잇고 있다. 부산 범어사가 2월 10일 정월방생법회를 연기했으며, 공주 마곡사도 2월 6일 합동방생법회를 취소했다. 울산 황룡사도 2월 8일 방생법회와 제4회 천진불어린이합창제를 취소했다.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또한 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입춘과 정월대보름 행사는 스님들만 진행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 방문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신도들에게 문자 통지했다.

### 군포교 · 학교 · 복지 등도 영향

불교계 군 · 교육 · 복지포교 현장에서도 신종코로나 확산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군법당 108평화순례단은 2월 23일 호국사자사서 개최 예정이던 '평화의 불' 봉안법회를 취소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도 2월 21일 군불총 창립법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조계종립 동국대도 주요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오는 2월 13일 예정돼 있었던 2020년 봄 학위수여식을 8월 가을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개최키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신입생 입학식, 24일 전체교수회의와 2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신입생 새터, 대학원 및 학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등도 취소키로 결정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동국대 어학당은 2월 4일부터 재개강했으나,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강의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주요 학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월 14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과 2월 26일 예정된 신입생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취소키로 결정했다.

지역 확진자 발생에 의한 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휴관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노인종합지관은 종로구 방침에 따라

**원행 스님 "질병 共業, 함께 극복"**
**전국 사찰선 방생법회 등 취소돼**
**종립학교 졸업 · 입학식 전면 조정**
**불교계 복지관들 휴관도 이어져**

2월 16일까지 휴관키로 했으며, 하계사회복지관도 무기한 휴관을 예고했다. 서울시 방침이 나오는 대로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의 휴관도 결정될 예정이다.

### 불자 위생 · 예방의식 고취 기회로

신종코로나 확산은 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 불자들의 구심체인 병원불자연합회는 2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법회와 3월까지의 법회 및 봉사활동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불자연합회도 2월 15~16일 순천 송광사에서 개최예정이던 신년법회를 3월 말로 잠정 연기하고, 이날 같이 진행예정이던 신임회장 총회는 임시총회로 변경해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류재환 병불련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확산이 멈추더라도 완치율이 완연히 높아지는 시기,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사회 곳곳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앞으로 불교계가 손 소독을 생활화하고 예방교육 등을 꼼꼼히 진행한다면 오히려 사찰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없는 문'을 열고 상월선원 대중이 세상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석달 간의 정진을 마친 아홉스님들은 덥수룩한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환희로웠다. 사진은 2월 7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가장 먼저 위례 상월선원 문을 나서는 회주 자승 스님 모습. 위례 상월선원=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상월선원 무문관 대중, 세상에 나오다

##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9명 스님 정진 성료

**진제 스님 찾아 짧은 법문**
**"광도중생 매진하자" 당부**

**법회 취소에도 대중 운집해**
**정진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

신도시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비닐하우스 천막 무문관을 세우고 동안거 정진을 한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90일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위례 상월선원은 동안거 해제일을 하루 앞둔 2월 7일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규모 법회를 취소하고 사중 행사로 전환했지만, 상월선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000여 명의 대중이 운집했다.

법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상월선원 천막법당을 참배하고 무문관 정진동으로 이동하며 시작됐다.

"문 열어라!"

천막 무문관 정진동 앞에 선 진제 스님이 일갈하자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석달 간 굳게 닫혀있던 '문 없는 문'이 열렸다. 진제 스님은 몸소 안거 기간 동안 무문관 정진을 했던 9명 대중들을 제접하기 위해 들어섰다.

정진동에 들어선 진제 스님은 9명 정진 대중들에게 벼락같은 법문을 설했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여무정(情與無情)들은 아홉 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바로 보면 천상 인간이 홀로 걸음할 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광도중생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진제 스님의 짧고 강렬한 법문이 끝나자 가사와 장삼을 수한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을 비롯해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아홉 대중들이 비로소 모습을 보였다. 처음 들어갈 때 정한 청규대로 안거 기간 동안 삭발과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이었고 수척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선방을 나선 정진 대중 스님들은 가장 먼저 삼천대천세계에 감사와 발원의 삼배를 올린 뒤 곧장 천막법당으로 이동했다. 스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도열한 사부대중들은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무탈 회향을 응원했다.

9명 정진 대중 스님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스님들의 삼배는 세상과 부처님, 그리고 사부대중을 향해 있었다. 도열한 대중들의 격려 속에 이동한 9명 스님들은 각자의 주석처로 돌아갔다.

한편, 무문관 정진 대중들은 각자 교구본사로 돌아가 동안거 해제일에 봉행되는 해제 법회에 참석한 뒤 만행에 나섰다. 위례=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2면 · 7면〉

# "재발심과 대분심으로 정진"

## 2월 8일 동안거 해제… 2000여 수좌 만행

지난해 11월 11일 입재한 기해년 동안거가 석달간의 정진기간을 끝내고 2월 8일 해제했다.

이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해제법어를 내려 수행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해제일인 지금 재발심과 대분심(大憤心)으로 정진(精進)의 끈을 놓지 말고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기해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9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8 · 비구니선원33)에서 총 1966명(총림276 · 비구1049 · 비구니641)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방장 해제법어 5면〉 윤호섭 기자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Weekly Focus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사부대중에게 듣다







9명의 정진대중 스님들이 2월 7일 천막결사 무문관 수행을 끝내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가에선 무명초를 욕망의 상징이라 하지만 풍찬노숙 끝에 드러난 스님들의 모습은 견성도인과 같이 숭고해 보였다.

# 은산철벽 부순 아홉 '見性道人'

〈견성도인〉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드디어 '문 없는 문'이 열렸다. 단풍으로 산하대지가 물든 가을에 시작된 아홉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은 엄동설한의 겨울을 지나 매화 내음이 느껴질 즈음 마침표를 찍었다.

선방을 나선 회주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을 비롯해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아홉 스님들은 모습은 수척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 90일, 치열했던 수행 여정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퇴임 이후 2차례 백담사 무문관에서 동안거 정진을 했던 자승 스님의 "안거 한철만이라도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에 매진했다.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진 대중의 정진력은 날카로워져 갔다.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곡기를 끊고, 두부 4쪽 · 방울토마토 3쪽 · 나물무침 2젓가락만 섭취하는 스님도 있었다.

70여 일이 지날 즈음에는 대중 스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정신을 차린 스님은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 아홉 대중 정진력, 결사의 힘

이 같은 아홉 대중 스님들의 정진력은 결사의 원동력이었고, 이는 대중들을 감화시켰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여 사부대중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결사에 동참했다. 회향까지 10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험관에서 무문관 수행을 한 불자들도 110명에 달했다.

자원봉사와 보시도 위례천막결사를 이끌었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은 매일 자비로 다과 물품을 구입해 선원을 찾은 대중에게 보시했고, 봉은사 사찰음식팀은 봉국사 공양간을 빌려 대중공양을 준비했다. 화장실 · 법당 청소 봉사자들도 매일 줄을 이었다.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과 밴드 개설 · 운영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결사 모습이다. 특히 현재 2300여 명이 구독 중인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은 선원 일정 공지부터 정진, 회향 현장을 생생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 결사 통해 '불교 중흥' 이끌자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참여했던 사부대중들은 결사 정신을 이어서 '불교 중흥'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문으로 천막법당 철야정진의 문을 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위례 상월선원은 꿈꾸는 곳이 아닌 꿈을 깨고 나오는 곳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죽여 사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아홉 대중 스님들이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 문화에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됐다. 유튜브를 통한 소식을 전한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 새로운 수행 결사 문화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상월선원 미륵불 기도처에서 매일 원만회향 발원 기도를 했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환풍 스님(남양주 묘적사 주지)은 "근기가 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들이 정진을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다. 아홉 대중 스님들이 무탈하게 정진을 원만회향할 수 있어 외호대중으로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번 결사로 한국불교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아홉 스님 모습이 모두 부처님"

동국대 구성원들과 매주 천막법당을 찾아 정진했던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새로운 수행 문화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다.

윤 총장은 "아홉 스님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걱정했는데 무탈하고 건강하게 회향해주셔서 감사하다. 정진을 마치고 나온 수행자의 위의를 보고 감동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에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결사 후에도 출 · 재가가 함께하는 수행프로그램이 이어질 것을 제언했다. 이 회장은 "재가자들도 스님들의 수행문화에 함께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좋았다"며 "특히 비안거 기간에는 선원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여 재가자가 참여하는 선 수행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으면 한다. 금번 상월선원 무문관이 재가자 중심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매주 음악회를 열고 음성공양을 올렸던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불교문화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계기"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하고 우리도 정진하자는 마음이 합쳐지니 음악 감상하는 분위기가 남달랐다"면서 "사찰은 많은 이들이 와서 신심을 내고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위례 상월선원 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났다. 앞으로 더욱 불교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일반 불자들의 기원도 이어졌다. 입재부터 회향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도 봉사를 진행한 김정숙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장은 "경외심이 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연세와 법납이 높은 분들이라 무문관 정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천막결사는 한국불교사의 전무후무한 결사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사를 통해 한국불교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창제 등에 참여하며 상월선원에서 정진해 온 김장순(70, 서울 송파구) 씨는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불교 위상을 세우고 중흥을 위한 결사였다"고 평가하며 "아홉 스님 모습이 모두 부처님이셨다. 걸음마다 길상이 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의 펜

## 결사, 한국불교 원동력 대중 에너지로 계승해야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회향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정확하게 89일만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은 89일의 시간 동안 자신을 가둬 내려놓고 오롯이 정진했다.

석 달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 자리에는 신도심 포교당 불사가 시작된다. 불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숴다. 천막 무문관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석달을 오롯이 수행했다. 한 달만에 5만여 사부대중이 다녀간 것은 아홉 스님의 정진력에 감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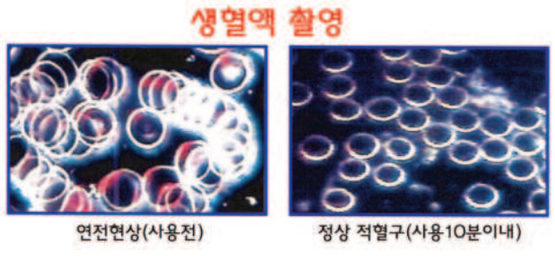
이제 사부대중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추운 겨울이었지만 선원 안팎으로 뜨거웠던 우리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국불교 중흥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과 논의, 실천은 결사는 지속시키는 힘이다. 신성민 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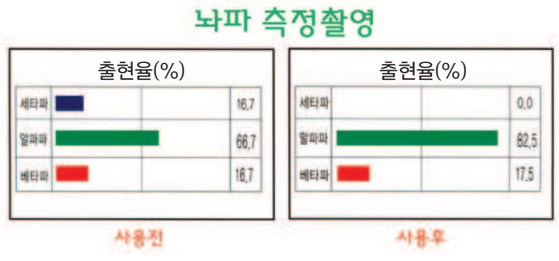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뇌파 측정촬영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이 흔들리는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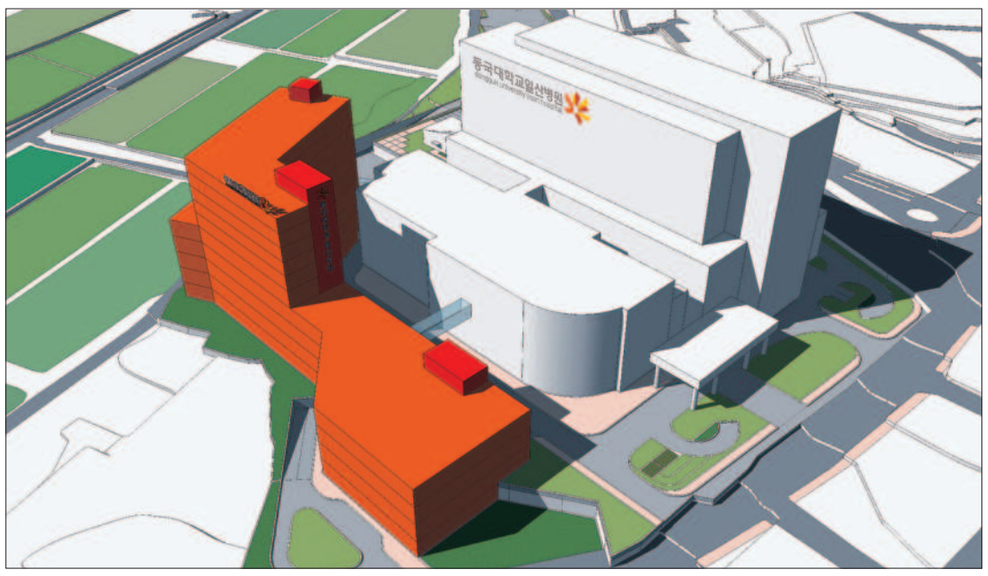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 동국대 일산병원 증축… 재도약 나선다

**2월 6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의료 인프라 확대 주장한**
**이사장 법산 스님 의지로**
**250병상 규모 건물 증축**

**2030년까지 3천병상 확대**
**전국적 병원네트워크 구성**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증축 조감도.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로 증축되는 건물. 이곳에는 250병상이 새로 들어선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250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추가로 증축한다. 이를 통해 경기 서북부 대표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2월 6일 BMC약학관 2층 회의실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 증축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불교 의료 인프라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현재 672병상 건물과 별도로 250병상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기존 병원에 100병상을 추가로 늘려 1000병상 이상의 일산 최대 규모이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의 위상을 갖출 계획이다. 완공은 2023년 예정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1,000병상으로 확대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성기 · 회복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고, 승가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 한방 협진의 활성화와 동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 공간 확충과 함께 이뤄져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증축은 불교의료 인프라 확대를 강조해 온 이사장 법산 스님의 강한 의지로 추진됐다. 지난 1월 31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26차 이사회에서도 일산불교병원 신축 계획을 승인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개신교나 천주교의 경우 수십 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 종합병원은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일산과 경주의 동국대병원 단 두 곳뿐인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불교의 자존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사부대중이 모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일산 · 분당 · 경주 한방병원 등 모두 1,2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 의료원은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증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병상 급 규모로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병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이사장 법산 스님의 원력이 동국대 의료원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자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며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동국대 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년 6월 진료를 시작해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고 있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현재 고양시 내 종합병원 중 두 번째 규모이며,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서 신뢰받는 종합병원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25돌 조계종복지재단, 전문가 양성 박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조직… 미래 비전 수립 돌입**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산하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5~6회 진행하던 실무교육을 대폭 확대, 불교 전반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월 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종무기조를 '일파만파(一波萬波)',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겠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한 교육사업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재단에 따르면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 재단 산하시설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몇 차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무 · 회계 등 분야별 교육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수로 사회복지 현장종사자와 중간관리자, 실무책임자, 최고관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총 교육 대상은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재단은 내다보고 있다. 예년 대비 4배에 달하는 숫자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본 정신을 되새기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며 "연간 20여개의 강의를 개설, 재단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불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은 불교의 대사회 활동 확대를 위해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직 실무차원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중앙승가대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법인 사무국 내에 중장기발전위원회(가칭)을 조직, 정책조정 · 대외협력 · 재정후원 개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하시설 종사자 중 정책적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들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책 검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비전은 12월 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발표된다.

보인 스님은 "올해 재단 창립 25주년인 만큼 앞으로의 비전을 내부 구성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불교사회복지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표이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원장과 재단 대표이사 겸직을 분리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표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함께 둔 대기업 사례를 취합해 검토 중이며, 이와 별개로 조계종 종법 제개정을 통한 대표자 변경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교구본사별 불교복지 확산을 위해 재단 차원의 법인 설립 및 교구 이양은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남지역 교구들이 연합해 복지법인 설립 실무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호섭 기자

# 천태종, 北영통사 봉축법요식 추진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기념사업 취지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는 2월 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문화교류사업을 비롯해 다문화NGO사업 등 올해 사업을 공개했다.

이날 나누며하나되기 정책과장 문법 스님(천태종 사회과장)은 "올해는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의 해이지만 2015년 마지막 법회 후 다례재를 비롯해 법회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조불련 측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다례재 봉행과 부처님오신날 합동 봉축법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태종은 남북교류 중단에도 그동안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 측과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제3국에서의 회동이 추진된다.

스님은 "정부의 대북방침과 북한 측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영통사 복원 15주년을 계기로 불심이라는 한마음으로 모였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영통사 보수 등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남북불교교류뿐만 아니라 올해 다문화NGO사업으로 다문화불교연합회 불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상호협력, 하나원 수료생 자비나눔과 불교체험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고려인 및 탈북청소년 DMZ 탐방 등 평화번영 통일기반 조성사업 등이 진행된다. 국내 저소득층 지원 등에도 사업을 확장한다. 2월 9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취약계층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자비나눔을 시작으로 서울시, 사랑의열매, 마사회 등이 사회공헌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신년하례, 군불교 진흥 다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국군불교총신도회는 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활발한 군포교 등 군불교 발전을 위한 원력을 모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스님을 비롯해 국군불교총신도회 고문 최현국 공군 중장, 박정이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최차규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고문(전 공군참모총장), 이경구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 중앙종회의원 보궐, 진화 · 가섭 스님 입후보

**2월 24일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서 최종 확정**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前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과 前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입후보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2월 5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마감 결과 직능대표 행정분야에 진화 스님이, 직능대표 포교분야에 가섭 스님이 후보 등록했다. 송광사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둔 진화 스님은 보궐선거 입후보를 위해 최근 주지직을 사직했다.

공석이 된 직능대표 각 분야에 후보가 1명씩 등록하면서 2월 12일 열리는 자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두 스님 모두 사실상 중앙종회의원 당선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는 2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 종립 중앙승가강원 학인 모집 안내

종단의 중진 교역자 및 인재양성, 미래교육 불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종도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 학 과 | 모집인원 | 교학과목 | 교학기간 | 수강시간 | 전형방법 |
|---|---|---|---|---|---|
| 대교과 | 00명 | 화엄경 | 1년(2학기) | 매주(월, 화) | 서류심사 |
| 사교과 | 00명 | ① 금강경 ② 대승기신론 ③ 능엄경 ④ 원각경 | 1년(2학기) | 매주(수, 목) | |

**2. 전형 및 개강 일정**

| 구 분 | 일 자 | 구비서류 | 비 고 |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 1. 10(금) ~ 2020. 2. 10(월) | 입학원서(교육원 소정양식)<br>※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br>※ 입학원서 : 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http://www.taegojong.or.kr)<br>※ 학력증명서 제출 | 사진 2매 (3×4cm) |
| 합격자 발표 | 2020. 2. 19(수) | 개별통보 | |
| 대교과 개강 및 입학식 | | 2020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 매주 월,화요일 |
| 사교과 개강 및 입학식 | | 2020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 매주 수,목요일 |

**3. 응시자격**

| 구 분 | 자 격 |
|---|---|
| 대교과 |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사교과정 이상 수료자<br>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br>③ 동방불교대학 졸업자로서 대덕법계 이상 수지자<br>④ 정규불교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 |
| 사교과 |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사집과정 이상 수료자<br>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집과 이상 수료자<br>③ 본종 입적 승려로서 동방불교대학 졸업자<br>④ 정규불교대학교 학사학위 이상 수료자 |

**4. 특전사항** : 1)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2) 본 종단의 스님이며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및 상위 대덕법계까지 시험 자격 부여.
3) 타종단 승려도 입학가능.

**5. 등 록 금** : 100만원(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 ~ 4**

**중앙승가강원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佛心으로 지켜낸 '안국사'

## 화재전소 · 부대이전 등 겪어 폐사 위기에 처했던 군법당 통도사 중심으로 신축 나서



안국사 신축법당 부지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시삽하고 있다.

창원=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남 창원 지역의 포교 거점지가 될 안국사 기공식이 마침내 열렸다. 과거 군부대 호국법당이던 안국사는 여러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도심포교의 새 도량으로 불자대중을 찾아간다. 안국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서 문화와 복지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2월 4일 창원 의창구 중동 안국사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안국사는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호국법당(구, 정심정사)이었다. 1965년 2월 군부대 식당을 개조해 군 사찰로 운영하다 전기누전으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에도 젊은 군인들과 불자를 위한 안식처로 창고를 개조해 법당으로 삼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교활동을 지속해왔다. 이후 1989년 조계종과 통도사(구룡사)가 군 포교를 위해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해 법당과 요사채를 신축하고 안국사를 개원해 군에 기증했다.

하지만 육군 39사단이 이전하면서 안국사는 존폐 위기에 처해지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직면했다. 조계종과 통도사는 안국사 존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스님들과 불자들은 안국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다. 안국사 존치위원회는 종교와 교육 복지를 위한 용지를 확보, 2015년 안국사 사업을 통도사에서 주관하게 됐다. 기공식은 조계종과 불자들 그리고 통도사가 지켜낸 안국사를 다시 건립하는 시삽으로 의미가 크다.

기공식을 진행하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창원 안국사가 새로운 도전을 안고 출발하는 중요한 사찰임을 강조했다.

현문 스님은 "군 포교 전당으로 군 장병들의 안위와 건강을 기원해온 안국사가 폐사 고불식을 맞고 이제 지역사찰로 새롭게 자리하게 됐다"며 "안국사는 이 시대 도심 포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유의 자리로 역할을 다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의 안녕과 국태민안,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한 안국사로 성장하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안국사는 대지 1603.8㎡(486평), 연면적 2290.2㎡(694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된다. 안국사는 도심 포교 거점지답게 쉼터인 카페와 문화 공간이 있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은 조감도를 설명하며 현대적 문화 포교에 발맞춰 지역 도심 포교활동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법본 스님은 "안국사 신축에 대해 의논할 때 방장 성파 스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현대적 문화 포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발맞춰 기획하게 됐다"며 "방장스님께서는 평소 문화와 예술을 중요시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불교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지론에 맞춰 안국사는 지역 도심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판에 새겨진 경봉 스님 글씨

## 창원 정법사, 원통보전 현판식


현판을 교체한 원통보전 앞에서 정법사 대중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 정법사 원통보전에 새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판 글씨는 정법사 초대 주지였던 경봉 스님의 글을 새긴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정법사(주지 도문)는 2월 2일 경내 원통보전 앞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현판식에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새 현판은 초대 주지였던 경봉 스님이 1976년 세납 84세 때 적은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주지 도문 스님은 "정법사 개원 후 처음 주지셨던 경봉 스님의 글을 현판에 새겨 새롭게 불사 한 것은 인연이 남다르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법사는 지하 공양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생일 축하연을 개최했다. 정법사는 매년 지역 어르신 및 신도를 위한 생일 축하연을 열고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정법사는 이날 산수, 고희, 회갑을 맞은 어르신 4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푸짐한 대중공양을 대접했다. 또한 무료급식소 보현의집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황원배 중식당 '리밍'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문 스님은 "경자년을 맞아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초발심으로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부산 약수사, 새해 어르신 건강 기원

## 지역 요양병원 · 경로당 위로 방문


2월 3일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 약수사 불자들.

부산 사하구 약수사가 지역 요양병원과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약수사(주지 혜우)는 2월 5일 한우리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혜우 스님과 불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병원에 들어섰다. 또한 중국인 접촉 및 해외 방문 등이 없었던 불자로만 방문단을 구성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도록 했다.

약수사와 한우리요양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인연을 맺고 6년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약수사와 불자들은 매번 방문마다 간식과 선물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병원 관계자 및 보호자, 환자를 위한 간식 200인분을 준비했다.

이에 앞서 2월 3일 약수사는 지역 감천경로당 4곳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간식 및 풍물놀이도 제공했다.

약수사 혜우 스님은 "효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자주 뵙고 인사 올리며 작은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효를 실천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기원한다.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청소년 인재불사, 불교 미래 밝혀"

## 선광사 · 염불공양회 장학금 자비행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이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도 부산에서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전달이 잇달아 지역사회 훈풍을 불어넣었다.

선광사(주지 성문)는 2월 2일 경내 법당에서 '제1회 부산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성문 스님은 박은지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불교 언론종사자 자녀에게 각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성문 스님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불자인재로 미래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적은 금액이라 오히려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선광사는 매년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해 선물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전해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는 2월 3일 부산 범일동 염불공양회 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11명의 학생에게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은 염불공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염불공양회는 25년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염불봉사를 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정선 회장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더욱 보람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봉사하고 불자로서 맑은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전시회 성금, 소외이웃에 회향

## 부산 을파소 관음사 운곡 스님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이 부산진구청 구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모습.

부산 을파소 관음사가 소외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2월 3일 부산진구청 구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지난달 29~30일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린 운곡 스님 선명서화 전시와 무료나눔 행사를 통해 모은 것으로, 성금은 총 121만원이다. 선명서화전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특별히 개최됐으며 운곡 스님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전시기간 운곡 스님은 방문하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이름을 직접 선명서화로 그려 나눠주며 경자년 새해 복을 기원했다.

선명서화는 이름 혹은 불명을 그림과 서체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운곡 스님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명과 명호를 선서화로 작품화해 순회전시 및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운곡 스님은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외이웃을 위한 행사라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을 위한 전시와 작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전법사교육원 학생 모집 안내

대승교화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법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사찰의 교임, 관리인 및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원 입학을 하시기 바라며, 전법사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 모집학과 및 전형

| 학 과 | 모집인원 | 교학과목 | 교학기간 | 수강시간 | 전형방법 |
|---|---|---|---|---|---|
| 전법사교육원 | 00명 | ① 불교기초교리<br>② 불교의식 | 1년(2학기) | 매주 금요일<br>오후1시~5시 | 서류심사 |

### 2. 전형일정

| 구 분 | 일 자 | 구비서류 | 비 고 |
|---|---|---|---|
| 원서교부<br>및<br>접수 | 2020. 1. 10(금)<br>~<br>2020. 2. 10(월) | ① 입학원서(교육원 소정양식)<br>※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br>※ 입학원서 : 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br>(http://www.taegojong.or.kr) | 사진 2매<br>(3×4cm) |
| 합격자 발표 | 2020. 2. 19(수) | 개별통보 | |

### 3. 응시자격

| 구 분 | 항 목 | 비 고 |
|---|---|---|
| 자격사항 | ① 전국 사찰 교임, 관리인<br>②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br>③ 연령 25세 이상의 전법사 희망 | ※ 범종단 차원 일반불자 수강 가능 |

### 4. 입학 및 개강일자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입학식 및 개강 | 2020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br>※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 입학식 후 개강 |

### 5. 등록금 : 50만원(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 교육원**

# 화두일념 이뤘나 철저히 돌아보라

###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중략〉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話頭一念)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습관처럼 좌복(坐服)에 앉아서 번뇌망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침(昏沈)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마음으로 방일(放逸)한다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가 출현해서 깨달을 수 없음이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하여만 진의심(眞疑心)이 발동 걸리게 됨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할지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道人)이라면 마조 도일(馬祖道一) 선사를 꼽을 수 있는데, 달마 대사의 스승이신 반야다라(般若多羅)존자께서 "네 밑으로 7대(代)의 아손(兒孫)에 이르러서 한 망아지가 출현하여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

실제 마조 선사의 탁월한 안목(眼目)은 감히 어느 누구도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하겠다. 위대한 마조 선사의 지도하에 84인의 도인 제자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백장스님과 남전스님 등 너 댓 분의 기량이 아주 출중(出衆)하였다.

백장(百丈) 스님이 마조 선사의 시자(侍者)일 때, 하루는 마조 선사를 모시고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다.

큰 저수지에서 들오리들이 놀다가 인기척을 듣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에게 물으셨다.

"저기 날아가는 것이 무엇인고?"

"들 오리 떼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조 선사께서는 백장 스님의 코를 잡고 세게 비틀어 버리셨다.

"아얏!"

백장 스님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일찍이 날아갔으리오." 하였다. 날아가지 않았다는 말이다.

백장 스님은 절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잊고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었다.

'오리들이 어디로 날아갔느냐고 물으셔서 산 너머로 날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조 선사께서는 왜 코를 비트셨을까?'

이 한 의심(疑心)에 빠져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그 의심이 홀연히 해결되었다. 마조 선사께서 코를 비트신 뜻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곧 조실방(祖室房)으로 달려가서, "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 말에 마조 선사께서 백장 선사의 눈이 열렸음을 아시고 운집종(雲集鍾)을 치게 하시니, 몇 백 명 되는 대중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다. 대중들이 운집하고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좌정(坐定)해 계시는데, 백장 스님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절하는 돗자리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법당을 나가 버렸다.

이에 마조 선사께서는 한 말씀도 설(說)하시지 않고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척척 통해야 되는 법이다. 마음 땅의 지혜가 열리면 이렇게 일거일동(一擧一動)의 낙처를 서로 아는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마조 선사께서 법상(法床)에 앉아 계시던 차제(此際)에 백장 스님이 들어오니, 선사께서 법상 모서리에 걸어 놓은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셨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여쭙기를, "이를 바로 씁니까, 이를 여의고 씁니까?"하니, 마조 선사께서 그 불자를 원래 걸려 있던 자리에다 도로 걸어 두셨다. 한동안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마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장차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설하려는고?"

그러자 이번에는 백장 스님이 걸려 있던 불자를 들어 보이니, 마조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다.

"이를 바로 씀인가, 여의고 씀인가?"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불자를 도로 제자리에 걸자, 마조 선사께서 "억!" 하고 벽력같은 '일할(一喝)' 을 하셨다. 이 '할' 에 백장 스님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가 깨어나서 마조 선사께서 '할' 하신 뜻을 깨달았다.

그 법이 황벽 스님으로 이어지고, 황벽 스님에게서 임제 스님으로 이어져서 임제종을 이루고, 중국의 당나라 천하를 풍미(風靡)하고 고려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태고 스님에게 전해져서 지금은 오직 한국에서만 오롯이 이어오고 있음이라.

마조선사의 또 다른 출중한 제자인 남전(南泉) 선사가 회상(會上)을 여니 각처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하루는 한 노승(老僧)이 10세 미만의 동자승(童子僧)을 데리고 남전 선사를 친견하러 왔다. 노스님이 먼저 남전 선사를 친견하고 청(請)을 드리기를, '제가 데려온 아이가 아주 영특한데, 저로서는 저 아이를 훌륭한 인재로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크신 법력(法力)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물러 나와서 동자승을 조실방으로 들여보냈다.

동자승이 인사를 올리니, 남전 선사께서는 누워 계시던 채로 인사를 받으며 물으셨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瑞像院)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을진대, 상서로운 상(像)을 보았느냐?"

"상서로운 상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뵈었습니다."

남전 선사께서 누워 계시니 하는 말이다.

남전 선사께서 이 말에 놀라, 그제서야 일어나 앉으시며 다시 물으셨다.

"네가 주인이 있는 사미(沙彌)냐, 주인이 없는 사미냐?"

"주인이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고?"

"스님, 정월이 대단히 추우니 스님께서는 귀하신 법체(法體) 유의하시옵소서."

그대로 아이 도인이 한 분 오신 것이다.

남전 선사께서 기특하게 여겨, 원주를 불러 이르셨다.

"이 아이를 깨끗한 방에 잘 모셔라."

부처님의 이 견성법(見性法)은 한 번 확철(廓撤)히 깨달을 것 같으면, 몸을 바꾸어 와도 결코 매(昧)하지 않고, 항상 밝아 그대로 생이지지(生而知之)이다.

이 사미승이 바로 '조주고불(趙州古佛)' 이라는 조주 스님인데, 이렇듯 도(道)를 깨달은 바 없이 10세 미만인데도 다 알았던 것이다. 조주 스님은 여기에서 남전(南泉) 선사의 제자가 되어 다년간 모시면서 부처님의 진안목(眞眼目)을 갖추어 남전 선사의 법(法)을 이었다. 그 후 조주 선사는 80세가 되도록 행각을 다닌 후에 회상(會上)을 여니, 한 수좌(首座)가 안거 석 달 동안 공부를 잘해오다가 해제일(解制日)에 이르러 하직 인사를 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이르셨다.

"부처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들어 말하지 말라."

이에 그 수좌가, "스님,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하니, 조주 선사께서는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摘楊花摘楊花]"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하는데 어째서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고 하는가?

이러한 법문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만일 누구라도 각고정진(刻苦精進)하여 이 법문의 뜻을 알아낸다면, 백천삼매(百千三昧)와 무량묘의(無量妙意)를 한꺼번에 다 알아서 하늘과 땅에 홀로 걸음하리라.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적양화적양화(摘楊花摘楊花)' 를 알겠는가?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여! 천리오추추부득(千里烏騅追不得)이라.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땀이여!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오추마라도 따라잡기 어렵느니라.

#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마조도일 선사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 원주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화상이시여. 요즈음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이에 선사께서대답 했습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

옛 어른들은 병을 앓으면서도 사람 키우는 불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조선사는 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의 일을 망각하지 않고 공부 인을 제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면불 월면불' 문답은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납승(衲僧)과 남북의 선객들이 머리를 맞대고 갖가지 분별 심으로 여러 가지 대꾸를 하였으나 하나같이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조선사의 물음에 대하여 설두중현 선사가 말했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여! 삼황오제역시하물(三皇五帝亦是何物)고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니 삼황오제가 이 무슨 물건인고?"

송나라 신종(神宗)황제는 '일면불 월면불' 이 아니라 '삼황오제가 이 무슨 물건인고.' 라는 말에 걸려 "나라를 풍자했다"고 여겼습니다. 알고 보면 '오제와 삼황' 은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모두 없어진 향상(向上)의 경지인 것입니다. 삼황과 오제에 대한 최고의 찬탄인 것입니다. 안목이 없는 것은 그 원주스님이나 신종임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천하 사람들의 시비를 끊을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진각혜심 국사의 제자인 각운(覺雲)선사는 "월면보광불(月面普光佛)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하루 낮 하루 밤이요, 일면무비존불(日面無比尊佛)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일만 · 일천 겁이다. 마조선사는 지난날에는 오래토록 세상에 머물려고 했으므로 일면불과 같고, 지금 돌아갈 길이 너무도 긴박하므로 월면불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대중에게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질문에도 휘둘리지 말고 내 살림살이를 단박에 내놓을 수 있어야 결제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해제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옛날 마조회상(馬祖會上)이 오늘의 총림이 될 것이요 오늘의 총림이 그 옛날 마조회상이 될 것입니다. 〈중략〉

금오탁파유리각(金烏啄破琉璃殼)하고, 옥토애개벽해문(玉兎挨開碧海門)이로다.

금 까마귀는 유리구슬을 쪼아 부수고, 옥토끼는 푸른 바다의 문을 밀쳐 여는구나.

# 正眼 활짝 여니 한 물건도 없다

###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寤寐一如除妄想(오매일여제망상)하고 夜半諦聽木鷄聲(야반제청목계성)이로다.

豁開正眼無一物(활개정안무일물)이요 十方法界自在行(시방법계자재행)이로다.

言下頓亡生死關(언하돈망생사관)하니 天眞面目完然現(천진면목완연현)이로다

塵塵刹刹本來空(진진찰찰본래공)이요 放下一念萬事休(방하일념만사휴)로다.

잠 깨고 잠자는 것이 한결 같음에 망상을 제하고 한밤중에 나무 닭 우는 소리를 완연히 들었도다.

언하에 몰록 생사관을 잊으니 천진한 면목이 완연히 나타났도다.

정안을 활짝 여니 한 물건도 없고 시방법계에 자유자재로 행하도다.

티끌마다 세계마다 본래 공함이요 한 생각 놓아버리니 만사가 쉬어지는 도다.



粉骨碎身破無明(분골쇄신파무명)하니 飜天覆地入眞空(번천복지입진공)이로다.

撒手懸崖進一步(살수현애진일보)하니 金烏夜半徹天飛(금오야반철천비)로다.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셔지도록 정진해서 무명을 파하니 하늘을 엎고 땅을 뒤집음에 진공에 듦이로다.

천길 현애벽상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내어디디니 금까마귀가 한밤중에 하늘을 사무쳐 나는도다.

歸本鄕人(귀본향인)은 如雲水竹林行(여운수죽림행)이로다.

본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구름과 물이 대밭을 지나감과 같으리라.

# 자장매 붉게 피었네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素食生計長時富(소식생계장시부)요 伴雲行裝萬事閒(반운행장만사한)이라.

叢林大衆이 결계를 하고 삼동안거를 원만하게 성만하게 되었습니다.

千里古園今日返(천리고원금일반)하니 鷲山靈界闢禪關(취산령계벽선관)이로다.

素食(소식)과 藥石(약석)으로 살아가니 번다함이 없어지고 六和로 화합하니 솔바람 물소리가 무진법문이 되었습니다.

산나물 먹고 사는 살림 언제나 넉넉하고 구름 벗 삼아 살아가니 늘 한가롭네.

천 리 옛고향 오늘에 돌아왔으니 영축산 신령스런 경치 선관을 열어주네.

영축산 선풍에 총림대중이 모두 옛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일을 마친 한가한 도인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서는 대중이여!

만나는 사람마다 영축산 소식을 묻거든 자장매는 올해도 때맞추어 붉게 피어서 무진법문을 설고 있다고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의 향기보다 더욱 진하고 붉다고!

寂寂澗琴雲裡秦(적적간금운리진)요 依依松瑟月中聽(의의송슬월중청)이라.

此行定見妙吉祥(차행정견묘길상)하리니 說法壇前海岳傾(설법단전해악경)하리라.

고요한 시냇물 거문고는 구름 속에 울리고 아련한 솔비파 소리는 달빛 가운데 들리네.

이번 떠나가면 반드시 문수를 친견하리니 설법단에 산과 바다가 예배하리.

현불 논단

# 미혹 바이러스 이기려면…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혹시 · 만일 의미하는 한자 '或'**
**'창 들고 지킨다'는 어원 가져**
**心 추가된 '惑'도 의미 비슷해**

**惑, 미혹함 따른 '회의적 의심'**
**감언이설 · 삿된 언동에 휘둘려**

**신종코로나보다 위험한 '미혹'**
**'방하착' 통해 내려놓고 살펴서**
**의심이라는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그룹사운드 '사랑과 평화'의 곡 내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혹시'의 '혹(或)'자는 그 자체로 '혹시'나 '만일'이라는 뜻을 가진다. '혹(或)'자는 '창 과(戈)'자와 '입 구(口)'자, '한 일(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戈'자는 고대의 창을 그린 것으로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성벽을 표현한 '口'자와 경계를 표현한 '一'이 더해진 '혹(或)'은 '창을 들고 성(城)을 지킨다'는 뜻이다. '혹(或)'자는 이렇게 성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혹시 모를 적의 침입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생기면서 '혹시'나 '만약'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혹(或)'자는 결국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올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마음 심(心)'자가 더해진 '혹(惑)'자도 '혹(或)'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성을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수상하게 여긴다는 뜻이 더해진 '혹(惑)'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다'나 '미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 '혹(惑)'은 불교에서 번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수면(隨眠)' 또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주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사악한 성격과 성향으로 잠재하며 조건이 맞을 때마다 표면화되기 때문에 마음을 뒤따르며 잠자고 있다는 뜻으로 '수면'이라 한다.

'혹(惑)'은 '나'라는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착각의 무한 순환'의 첫 고리로 등장하기도 한다. 혹(惑) · 업(業) · 고(苦)라는 괴로움의 도돌이표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12지(支)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혹(惑)은 무명(無明)과 애(愛)와 취(取)의 3지(支)에 해당한다. 십이연기의 순관은 이와 같은 혹(惑)이 바탕이 되어 노사(老死)의 고(苦)가 생긴다는 견해로, 결국 마음속에 있는 아집을 중심으로 하는 그릇된 생각이나 성격을 모두 혹(惑)이라 할 수 있다.

이 혹(惑)은 다시 견혹(見惑)과 수혹(修惑)으로 나눈다. 견혹은 이론적이고 지적인 미혹으로 속칭 '안다병'에 해당되고, 주로 후천적인 것으로서 바른 이론을 듣고 잘 이해하기만 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수혹은 사혹(思惑)이라고도 하는데, 습관적이고 정의적(情意的)인 미혹으로서 기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좀처럼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습관과 기질에 의한 끈질긴 미혹으로서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차 조금씩 제거되는 것이다.

혹(惑)에는 미혹한 상태에서 하는 '회의적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상가와라경(S46:55)에서 이 마음 상태를 "마치 물그릇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흙탕물이고 어둠 속에 놓여 있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혹시'라는 미혹과 의심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것에 감염되어, 세간의 시시비비(是是非非)에 혹(或, 惑)해서 답답하고 안절부절못할 때는 '방하착'을 사용해야 한다. 작금(昨今)은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삿된 법을 근절하거나, 편안히 가라앉히거나, 또는 바로 벗어나거나 하는 '놓음'의 지혜를 통해 '혹시'라는 의심의 번뇌에 물든 병난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社說

# 결사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회향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정확하게 89일만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은 89일의 시간 동안 자신을 가둬 내려놓고 오롯이 정진 또 정진했다.

이들 9명 스님들은 풍요의 시대에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걸었다. 하루 한 끼 공양하며 14시간 이상 정진하고 절대 천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옷 한 벌만 허용됐고, 삭발과 목욕은 금지됐다.

중간 중간 전해진 소식에서도 스님들의 날선 정진력을 알 수 있었다. 안거 막바지 한 스님이 의식을 잃는 긴급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결기를 보여준 아홉 스님들에게는 저절로 경외심이 들게 된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석 달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 자리에는 신도심 포교당 불사가 시작된다. 불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입재 이후 한달여 만에 5만 명 이상 사부대중이 다녀간 결사처는 흔하지 않다.

이는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천막 무문관을 설립하고 석달을 오롯이 수행한 아홉 스님의 정진력에 감화됐기 때문이다. 유튜브로 선원 소식을 전하고 외호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열린 결사로서의 면모도 대중의 호응도를 높였다.

이제 사부대중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추운 겨울이었지만 선원 안팎으로 뜨거웠던 에너지를 어떻게 한국불교 중흥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과 논의, 실천은 결사는 지속시키는 힘이다.

# 복지 전문가 양성 시급하다

25년 전, 불교계의 낮은 사회복지 인식을 높이고 불교만의 복지영역을 구축하고자 창립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산하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5~6회 실시하던 일종의 보수교육을 대폭 확대해 불교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무기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정했다.

기실 불교계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천태종복지재단, 진각복지재단 등 국내 주요종단이 앞장서 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게다가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14개 교구에서 교구별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전국적인 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웃종교에 비해 조금은 뒤늦은 복지영역 투자였지만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지역복지 현장에서는 "주지스님 말 한마디에 법인 운영방향이 결정된다"거나 "사무국의 체계 · 인력 ·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전문적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정기적 교육과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기에 올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전문교육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교육 분야도 법인 · 장애인 · 지역복지 · 노인 · 노무회계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또한 현장종사자와 중간관리자, 실무책임자 등을 위한 별도 교육도 준비돼 연간 2000여 명의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양성에 따라 불교 대사회역할이 보다 강화되길 기대한다.



지인 스님의
## 병상포교일기

# '知音'이라는 벗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아와 종자기를 생각하게 된다.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종자기처럼 환자의 숨소리를 듣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음의 벗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호스피스 병동서 임종기도를 요청할 경우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갈등 없이 임종 기도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킨 후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얼마 전 뇌졸중으로 3년간 투병하다 갑자기 폐렴으로 임종에 다다른 환자가 있어 임종 기도를 가게 되었다.

의사가 임종을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친지들과 가족들은 모두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는 병실에 들어가 이전처럼 참회 기도와 임종 전 수계의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딸에게 인사를 시킨 후 나 또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가만히 환자의 눈을 마주했다. 환자는 호흡이 목에 걸려 힘들게 숨 쉬는 상태고, 눈은 가늘게 뜬 채 나를 바라봤는데 환자의 그 눈빛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스쳤다.

환자를 바라보는 내 옆에서 그의 아내가 "3~4일째 이렇게 밤낮으로 눈을 뜨고는 감지를 않아요. 잠도 안자고, 이렇게 눈 못감고 가실까 걱정입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나는 그렇게 무언가 석연치 않



그림 · 최주현

음을 느끼며 돌아왔고 절에 와서도 계속 환자의 눈빛이 나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가족들은 발병 후 환자를 살리기 위해 2~3년간 노력했다. 딸은 직장까지 그만 두고 아버지 완쾌에 온전히 몰입했다. 이렇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 모두가 일념으로 노력했다. 갑자기 임종 기도와 가족들의 작별인사 모습이 나 자신조차도 너무 낯설었다. 나는 순간 '거사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상태를 두고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에게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었다. 딸은 나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15일 동안 아버지가 계속 아프시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 일반 병실로 옮기는 과정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라고 울먹였다.

다음날 새벽, 그 환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편안히 임종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딸이 아버지 귀에 대고 그동안 중환자실을 오가며 위급했던 상황을 소상히 전했고, 의사의 조언으로 모든 일가친척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급했던 마음, 의료진들이 기도 삽입을 권할 때 아버지가 원치 않을 것 같아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임을 오롯이 전하자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면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얘기를 전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준 딸의 지혜가 백아의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울리는 것 같았다. 딸이야말로 아버지에게 진정 '지음(知音)'이라는 벗이 아니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일반 재가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Ⅲ. 모집인원 및 편제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범패학과(2년제 정규반)
2. 모집인원 : 각과별 00명(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 •전형료 : 5만원 •입학금 : 20만원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 특전 : 본 종단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Ⅳ.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10일 ~ 2020년 2월 25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20년 2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20년 2월 27일(목)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Ⅳ. 접수서류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입학문의
TEL : 02_745_2030, 010-3089-9983
FAX : 02_733_0728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112)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2020학년도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인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수련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개강일 : 2020년 2월 27일 (음력 2월 04일 목요일) 오후3시
❋수강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2회)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과 목 :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제의식. 관음시식등, 사물다루는법, (실전위주)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개인지도)
❋수강료 : 월10만원 (수시모집가능)
❋강 사 : 수암, 덕우 (외전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사 진영포교당 : (055) 343-2267~8700 수암 : 010-5488-7060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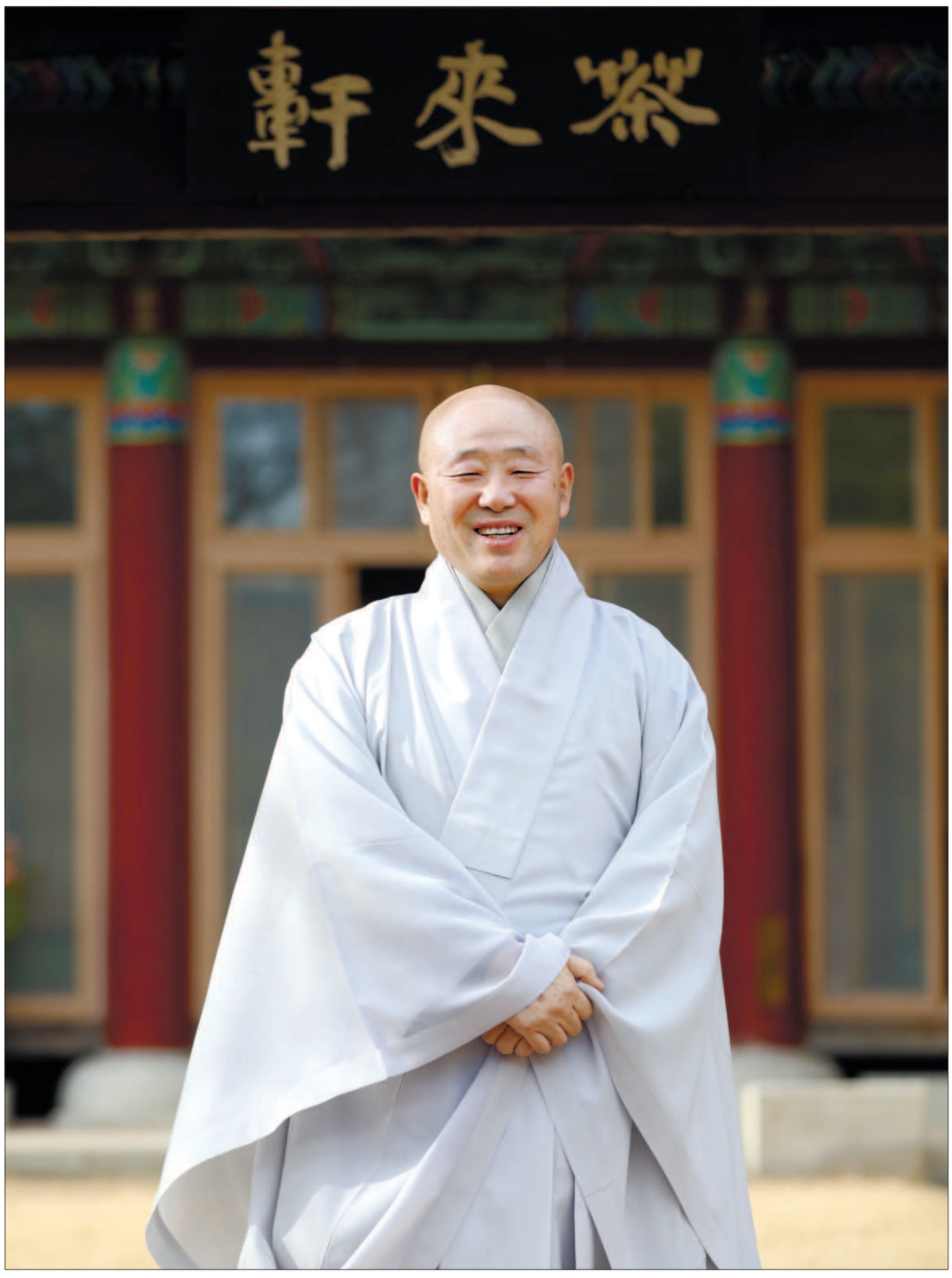
# “수행풍토 회복, 불교 중흥 시발점”

## 원명 스님
### (봉은사 · 상월선원 주지)

**상월선원 해제, 韓불교 발전 새역사**
현 수행 열기 이을 체험 공간 마련할 터
현재 설계 진행중…올 8~9월 착공 예정
2천여평에 지하 2층 지상3층 규모 불사
250여억원 소요, 복합수행문화도량 조성

**2015년 봉은사 주지에 취임하다**
봉은역사문화공원 등 가람정비 한창
거사 불교 및 가족 법회 활성화에 진력중
옛 조포사 명성 복원… 3~4월 두부 시판
환경 운동 펼칠터, 1회용 용기 모두 없애

취재=김주일 편집국장 · 정리=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수행 문화에 새 바람을 일으킨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2월 7일 회향했다. 위례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촌 맨끝자락. 3천평 허허벌판에 친 천막 하나에 육신을 의지한 채 맹추위와 싸우며 선풍 진작에 힘쓴 9명의 수좌들.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하며 천막결사의 성공을 이끈 이가 있다. 바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다. 상월선원 운영까지 책임을 맡은 원명 스님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천막법당서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열고 정진했다. 이런 신심과 열정으로 90일간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한국불교의 수행풍토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성공적 평가를 받았다. 상월선원 주지직도 함께 수행한 원명 스님을 1월 29일 봉은사 다래헌서 만나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여정과 앞으로 불사 계획을 들어봤다.

**Q 21세기 새로운 결사의 전형을 보여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천막결사 회향의 시대적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행풍토 회복만이 한국불교 중흥의 시발점이라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월선원 결사를 앞두고 새로운 수행풍토 진작에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지닌 장점을 잘 살려 대중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자는데 이번 결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홉명 스님들이 정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불교가 새롭게 출발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무문관 천막결사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결사를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요?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나 시작 전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천막결사는 회주 스님(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기획하셨습니다. 회주 스님은 풍찬노숙이란 말처럼 다소 여유가 있는 제방의 수행풍토서 벗어나 부처님의 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숙자 같은 심정으로 수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수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수행자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큰 결심을 하신거죠. 처음에는 종로 탑골공원서 진행하려고 계획했는데, 여러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종단 종교부지 불사 현장이었죠.

**Q 천막결사를 시발점으로 이러한 도심결사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 상월선원서 하안거 등에 천막결사가 더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번 천막결사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막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수행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사의 연장선상으로 앞으로 상월선원은 수행과 불교전통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원명 스님**은… 능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7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계했다.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용주사, 불국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동해 삼화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등재에 공헌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조계종 호법부장을 역임키도 했다.
2014년부터 1년간 서울 조계사 주지를 지냈으며, 그 후 2015년부터 서울 봉은사 주지를 맡아 5년여 동안 봉은사 대중과 함께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봉은사에서도 생전예수재의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기타로 사회복지법인 봉은, 사단법인 환경정의, 재단법인 여진불교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및 대표직도 맡고 있다.

**Q 천막결사 이후 천막법당 자리에는 새로운 불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들려주시지요.**

현재 설계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인허가 과정 등을 거쳐서 올 8~9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상월선원 부지 총 평수가 3천평인데, 2천평 정도가 공사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으로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불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는 주차장, 지하 1층에는 문화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에는 대웅전과 지장전, 관음전, 전시실과 공양간, 요사채 등을 갖출 겁니다. 한옥 형식은 용마루 때문에 지상 2층까지 밖에 못 짓지만 슬라브 형태를 활용해 지상 3층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설계 완성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 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공사 소음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근 아파트 입주인 내년 5월 전에 기본적인 뼈대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한 도량이지만, 인근 지역민들이 문화생활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수행문화 복합도량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Q 이번 결사의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이셨는지요?**

상월선원 천막 기도법당을 가서 보니 엄청 컸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지금은 오히려 그 법당이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로 오는 단체 방문객보다 승용차로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함께 하는 수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체험 정진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불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중이 많이 찾아와 기도하고 스님들을 격려해 주는 것은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어떤 때 대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찾아와 기도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Q 앞으로 상월선원 불사가 완료되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길 발원하시나요?**

기본 바탕은 수행이지만 문화가 함께 하면서 일반대중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공 드리는 것도 불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편이지요.

불사에는 대략 250억원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상월선원에 대한 큰 관심 덕분에 불사가 원만히 회향 되리라 봅니다. 벌써부터 공사비 1%를 기부하겠다는 불자님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의 십시일반 원력으로 이뤄진 불사가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불사 후에는 종단의 직영사찰인 봉은사 포교당 상월선원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제 화제를 돌려 현재 주 소임을 보고 계신 봉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5년 봉은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봉은사는 현재 봉은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가람정비와 중창불사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올해 중점적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은사는 사격에 비해 많은 이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지만 공연장도 없습니다. 공연이 수시로 열리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법회와 문화활동이 함께 하는 도심 사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해 완공되는 불사는 기존 매점자리에 들어서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여러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식 축대 등을 전통방식으로 새롭게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Q 올해는 특히 10 · 27법난이 발생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법난기념관도 불사에 함께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 기재부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일정상 연내에 첫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재위 등 심의를 거쳐 앞으로 3년 기간의 불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사만도 1년 넘게 걸리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종단의 뜻을 받들어 장기적 시각에서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Q 봉은사는 한국불교서 현재 침체된 거사불교가 새롭게 움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사림회를 비롯해 남성합창단 등을 지난해 새롭게 구성하셨던데요. 거사불교 포교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사님들은 보살님들에 비해 처음엔 신심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단 신심을 가지면 매우 적극적입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을 갖고 계셔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도 무엇보다 큽니다. 앞으로도 거사불교 활성화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이와함께 거사불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신행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음악원 등을 통해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가족 참여를 더욱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Q 스님께선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전통 문화를 매개로한 포교 전략도 갖고 계신지요?**

고문헌을 보면 봉은사는 한때 조포사(造泡寺, 제향에 올리는 두부를 만든 절)라 불렸습니다. 인근 선정릉서 진행되는 제사상에 올리는 두부입니다. 지난해에는 선정릉 측과 협의 하에 제향에 직접 두부를 만들어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봉은사 만의 차별성 있는 두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월정사 등서 직접 공수한 친환경 재배 콩으로 유기농 두부를 만들어 3~4월 경부터 전통문화 식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포교 전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현대는 환경운동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찰내 일회용기를 모두 없애고, 직접 용기를 가져와 공양물을 받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봉은사서 만든 재사용 가능한 통을 나눠주고 이를 활용할 것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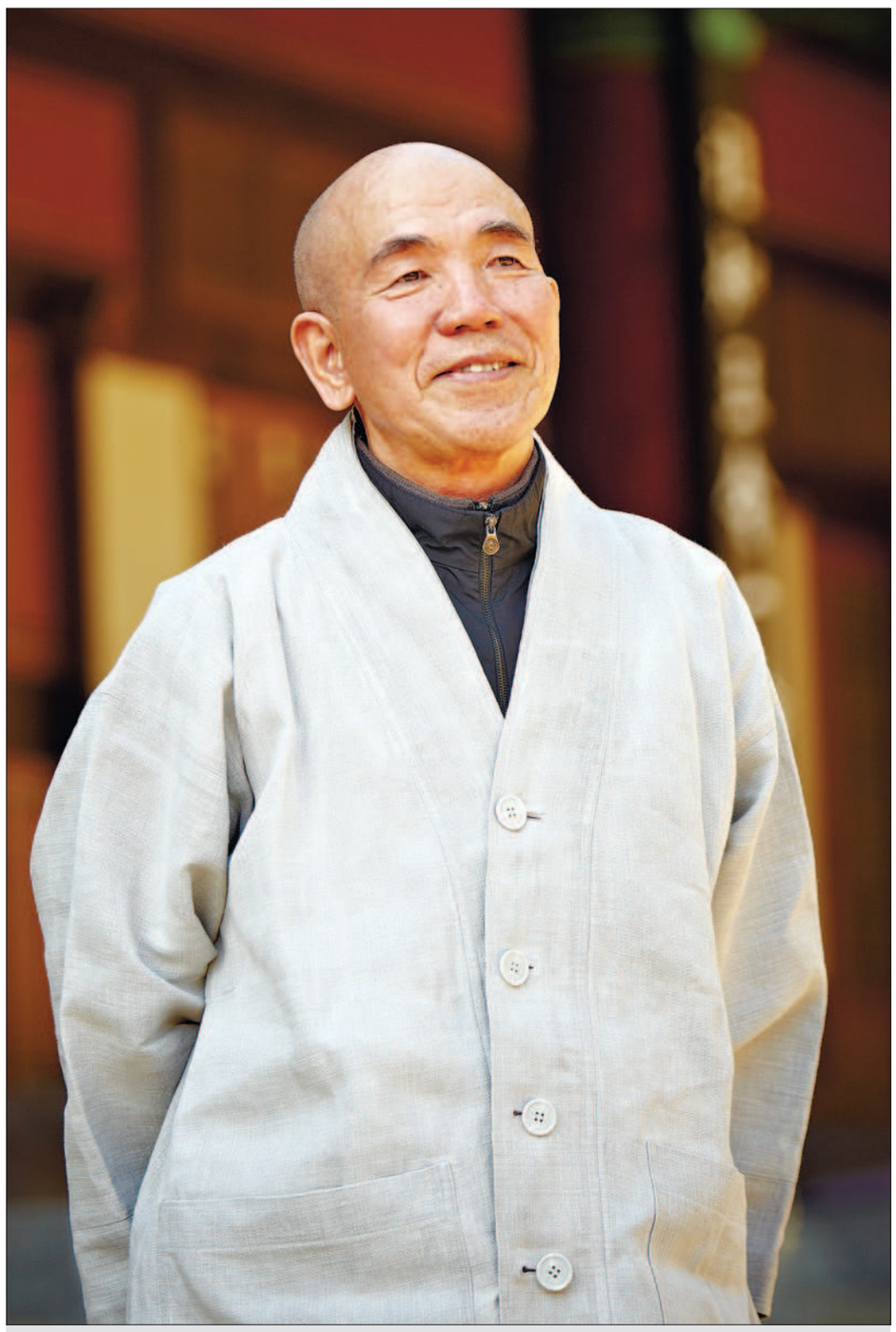
사찰 주지 소임을 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심(公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심을 갖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5~2/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 불교신문사 | 6 |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김원수 | 청우당 |
| 2 | 지금 이대로 좋다 | 법륜스님 | 정토출판 | 7 | 스스로행복하라:법정스님열반10주기특별판 | 법정스님 | 샘터 |
| 3 | 요가 디피카 | B.K.S.이행기/현천스님 | 선요가 | 8 | 10분치유명상:문화치유명상 | 송주 김응철 | 불교신문사 |
| 4 |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 혜민스님 / 이영철 그림 | 수오서재 | 9 | 딱돌해설서:바르도에서닦지않고해탈하는법 | 중암선해 | 금빛소리 |
| 5 | 안녕다람살라 | 청전스님 | 운주사 | 10 | 금강경강해:금강경오가해를중심으로 | 서재홍 | 담앤북스 |

책세상



**적명 스님**은… 1939년 제주도서 태어나 오현고를 졸업했다. 나주 다보사 우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1959년 해인사 자운 율사에게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 자운 율사에 의해 비구계를 수지했다.
26세에 토굴서 우연히 보조국사의 〈절요〉를 읽다가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는 구절을 보고, 크게 느낀 바 있어 무자 화두를 참구했다. 28세에 해인사로 가서, 1967년 해인총림이 개설되고 성철 스님이 방장에 추대돼 선풍이 일기 시작하자, 가행정진한 이래 평생 선방을 떠나지 않았다.
당대 선지식인 전강 스님,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성철 스님, 서옹 스님, 향곡 스님 등 문하서 법을 묻고 정진했고, 〈능엄경〉 변마장의 내용이 낱낱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화두선에 더욱 매진했다. 해인총림 선원장, 영축총림 선원장, 고불총림 선원장, 수도암 선원장,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전국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9년 정월, 청정도량인 봉암사에 주석하며 후학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보였다.
간화선 선풍을 진작하고자 국제선센터 건립을 발원해 2015년 선원수좌회와 공동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수좌복지회를 만들 것을 제의, 성사시켰으며, 봉암사에 원로 수좌를 모시기 위해 원로 선원을 건립했다. 2018년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9년 12월 24일에 입적하니, 세속 나이 81세, 법랍은 60세였다. 〈사진제공=불광출판사〉

# "가슴속에 번뇌가 다할때는 없다"



수좌 적명
불광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연말을 맞아 다소 들떠 있던 지난 2019년 12월 24일,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이 전해졌다. 출가 이후 반백 년 넘는 세월을 토굴과 선방서 지내며 오직 수행자의 본분에 매진한 스님의 입적 소식은 불교계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추모로 이어졌다.

"영원한 수좌", 스님을 일컫는 대표적인 명사이다. 출가 60여 년 동안 선 수행에 몰두한 스님은 평생 선방 어른을 위한 특별 대우도 마다하며 '수좌'로 남을 것을 고집했다. 오직 수좌로서의 행과 후학 지도에만 힘을 쏟았다. 언론 인터뷰를 허락한 일도 거의 없었고, 일반 대중을 위한 법석에도 잘 앉지 않았다. 물론 남겨 놓은 저서도 없다. '중이 중다워지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밖에 없다고 여긴 스님에게 인터뷰나 법문, 저서를 남기는 일은 수행자의 길과 거리가 멀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님의 공부와 가르침의 흔적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하는 게 세인의 바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이 남긴 일기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일기는 오직 수행과 공부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어떤 사족도 달 수 없을 만큼 간결한 문장은 평소 스님의 인품을 짐작케 한다. 스님의 일기 몇 편과 짧은 법문을 묶은 이 책은 스님의 삶과 수행의 뜻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픈 염원이 모여 간행된 적명 스님의 '첫 책'이자 '유고집'이다. 문장마다 서려 있는 스님의 치열한 삶. 그것은 거울이 되어, 한 개인을 넘어 시대를 이끌며 세상을 비출 것이다.

1장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30여 년 간 스님이 남긴 일기 가운데 70편의 글을 엄선해 엮었다. 끊임없이 번민하며 괴로움을 토로하는 '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과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치열한 '수행자'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좋은 곳, 좋은 때, 좋은 인연들을 구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스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속세인들을 향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2장은 선방서 수행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짧은 법문을 모았다. 일반 대중은 흔히 접할 수 없던 감로 법문으로, 스님의 음성이 옆에서 들리는 듯 생생하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수행은 왜 해야 하며, 욕망은 어떻게 다스려 하는지 등 오랜 수행을 통해 스님이 깨달은 불법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3장에는 1989년 월간 〈해인〉지에 소개된 방송작가 이윤수 씨와 적명 스님 간의 인터뷰, 그리고 지난 1월 3일 휴심정에 게재된 법인 스님의 추모글을 수록했다. 적명 스님과의 짧은 인연이지만, 당시의 일화에는 토굴서 혼자 지내며 정진을 거듭해 가는 소박한 미소의 수행자, 그리고 배움의 길 위에서는 아랫사람에게도 서슴지 않고 묻는 어른스님의 겸손한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이 책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심 내용은 단연 '스님의 일기'이다. 일기 속에서 편편이 발견되는 수

## 수좌 적명

**'영원한 수좌', 봉암사 적명 스님 유고집**
**30년 적명 스님 일기 중 70편만 엄선해**
**평소 강조한 짧은 감로 법문 함께 실어**
**〈해인지〉등 인터뷰와 추모글도 수록해**

좌 적명의 진면모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데에 있다.

"있는 것 어느 하나 / 허상 아님이 있던가? 조그만 들꽃에 팔려 / 벼랑을 구를까 두렵노라"

일평생 수좌의 길만을 걸어 온 스님의 일기에서 우리는 '조그만 들꽃에 팔려' '벼랑을 구를' 것을 염려하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대중 처소로 자리를 옮기며 자신을 바라보는 후학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 끊임없는 변멸 가운데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걱정하는 자를 만나기에 이르면 우리는 색안경을 벗고 진짜 '적명 스님'과 마주앉게 된다. '세사를 초월한 경계'에 선 도인 대신 '뇌고로운' 현재를 끊임없이 번민하는 '인간 적명'이 눈앞에 서린다.

그 가운데 매일같이 자신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도 의지의 칼날을 세우고, 빈틈 하나 허락하지 않는 자기 성찰의 문장에 이르면 스님을 왜 '진정한 수행자'이자 '사표'로 여기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 가는 시간이여! /나를 버리지 말라/부질없는 티끌 속에/나를 던지지 말라. 던지지 말라"

'수좌'. 적명 스님을 이토록 적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더 있을까? 오직 '깨달음'을 향한 일에 몰두해 온 스님에게 이것 외의 어떤 수식도,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스님 스스로 적어 내려 간 지난 행적을 더듬으며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고승 혜홍 각범의 게송에 대해 스님이 일기에 적은 것처럼 '매우 용감하다' 고…….

"하루 열두 번 참회해도 부족하고 백 번을 새롭게 다짐해도 오히려 모자란다. 수좌의 마음속에 안일함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자긍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수좌의 가슴은 천 개의 칼이요, 만 장의 얼음이어야 한다."

이 책에 담긴 스님의 유고와 법문에는 세간을 꿰뚫는 푸른 눈의 납자도, 천진하고 인자한 미소로 대중을 맞이하던 스승도 있다. 스님의 글은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준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보살의 길'이다. 스님이 법문 때마다 강조한 말이다.

"깨달음은 일체가 자기 아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니,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깨달은 자이다."

평소 불이(不二), 중도(中道)를 강조한 스님 법문에서도 관련된 대목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깨달음의 내용은 사실 자비입니다. (…)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나와 남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수행의 최종 목적은 일체 중생과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줄면 그만큼 타인과 만생명과도 하나가 되어 행복해집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니, 남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 역시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스님이 말하는 '보살의 길'이자 '깨달음'이다. '보살도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는 스님 말씀은 이러한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번민의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 스님의 치열함은 사부대중을 향한 보살심의 발현,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지어 얻고 마음이 열려 해탈을 성취한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안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토록 오래 해도 안 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번뇌와 집착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루는 일이라면 이 세상 누구라도 해서 안 될 사람 없음이 너무도 충분히 증명된 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겸손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제11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6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1년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개인지도,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무파사 불교대학원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사진 ……3매
→ 개강일시 : 2020년 3월 7일(토) 오후2시
→ 수 업 : 매주 토요일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주 소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
→ 신청문의 :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불교대학원(학장)

대한불교조계종 특수교육기관
보경사
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인모집

*개 강 2020년 3월 3일
*교육과정 불공의식, 재의식(각종시식, 영반, 시다림), 불전사물, 바라작법, 법음범패 등
*강 주 대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전수자)
*대 상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범종단스님, 재가불자
*구비서류 입학원서 / 승적증명서 / 반명함판사진 2매
*모집기간 2020년 2월 29일까지 (수시모집)
*입학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종무소 교무처
교학처 010-4530-7444
교무처 010-9370-3734
강주스님 010-4783-0077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 공연으로 보는 천도 법문

## 땡큐 붓다콘서트 2020 천도재 니르바나

**3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
**자명 기획 · 유진규 연출 · 박범훈 감수**
**마가, 이삼 스님 매고동 신은미 등 출연**
**더욱 웅장해진 스케일 화려해진 출연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기원정사 주지)은 3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땡큐붓다 콘서트 2020 천도재 니르바나'를 개최한다.

2014년 불교계 최초로 국악뮤지컬로 발표된 바 있는 자명 스님의 '천도재 니르바나'는 2019년에도 뮤지컬로 성황리에 공연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땡큐 붓다콘서트' 역시 자명 스님이 기획한 공연으로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공연의 테마인 '천도재'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염불을 통해 생전의 업장과 죄업을 소멸시키고 육체와 정신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옮겨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천도재의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사성제(四聖諦)와 더불어 조사들의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게송들을 음률화하여 목탁과 요령 또는 징과 북 등과 함께 읊는 의식이다. 때문에 천도재에 쓰였던 염불의 음률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음악이다. 고래로부터 사자전승된 승가만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재 자체가 음악으로 구성된 의식임을 생각할 때 '천도재 니르바나' 역시 공연이기에 앞서 또 다른 형식의 천도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자명 스님이 기획하고 제작한 이번 공연은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이 자문과 감수를 했으며,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연출한다. 지난해에 비해 더욱 웅장해진 스케일과 더욱 화려해진 출연진 그리고 최고 수준의 스텝으로 돌아온 이번 공연은 예불(禮佛)의 장 · 시식(施食)의 장 · 열반(涅槃)의 장 · 회향(回向)의 장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천도재의 시작은 대부분 법주가 영가를 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천도재의 시작을 알리는 염불로 영가를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으로 영가를 위로한다. 이렇게 법주가 영가를 모시면 몸의 때를 씻고 영가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업의 때를 씻는다. 법주의 청에 의해 부처님 앞에 다시 선 영가는 해탈의 새 옷을 입는다. 재주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주는 부처님께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축원을 한다.


2016년 서울 국립극장서 열린 '땡큐 붓다콘서트'에서 자명 스님이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마가 스님의 프롤로그로 공연이 시작되면 △'예불의 장'에서는 자명, 이삼, 성운, 태현, 고금 스님과 매고동이 출연해 범종타종, 영산회상, 거불청염불,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선회향무, 대법고를 선보인다.

자명 스님의 음성공양으로 시작되는 △'시식의 장'에서는 동환 스님과 동환봉명회 스님들, 전보현, 배일동, 조상민, 김모래가 출연해 무용, 판소리, 접행(사물오악), 회심곡, 장엄염불 등을 선보인다.

역시 자명 스님의 음성공양으로 문을 여는 △'열반의 장'에서는 김태란, 유진규, 강해진, 김보민, 윤서영, 김모래가 출연해 무소유의 노래, 마임(빈손), 해금연주(부처님의 향기 연꽃-작곡 이재성) 등을 선보인다.

법주가 부처님께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법을 설하는 천도 의식이 시작된다. 법은 경전 속의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들의 깨달음을 읊은 게송이 중심을 이룬다. 이울러 온갖 공덕과 지혜가 함축된 진언과 다라니도 들어있다. 법문을 영가가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영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법신의 자리를 얻게 된다. 이때의 법문은 법주의 착어 법문으로 시작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생사는 또한 무엇인가' 등 의문과 답이 노래의 중심을 이룬다. 착어 대목에서 영가가 법의 요체를 깨닫지 못하면 영가는 다시 법문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 △'회향의 장'에서는 사부대중합창단과 신은미가 출연해 나무 아발로키테슈와라 챈트명상, 관세음보살(드로잉)을 선보이고 '연꽃 피어오리리' 대합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한 편의 천도재 법문이 끝난다. 대중이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 자리는 법신의 자리가 될 것이다. 만약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음 공연을 기다려야 한다.

자명 스님은 "문화포교라는 방편을 통해 우주 법계를 밝히고, 중생과 이웃을 제도할 수 있는 원대한 원력을 세웠고 가장 자명다운 방식으로 실천해왔다"며 "문화공양주라는 소임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저의 가슴을 뛰게 했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만큼 저절로 몰입되게 했으며 삼매에 들게 했다. '땡큐붓다콘서트 2020 천도재 니르바나'를 통해 대중 모두가 거룩한 행원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매문의 (010)9343-3001.



## '응중산수(凝重山水) – 겨울' 展

**가나아트센터 제3관 3월 1일까지**

가나문화재단과 가나아트센터는 3월 1일까지 '응중산수' 전을 개최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겨울산의 묵직한 풍경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권순철, 김종구, 박대성, 사석원, 이명복, 이원희, 임옥상, 황재형 8인의 작품 13점이 전시된다.

대부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며, 박대성의 '화엄금강불설국(한지에 먹 236.5×611.4cm, 2011)<사진>을 비롯해 전시장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는 대작들이 많다. 8인의 작가는 겨울산의 풍경을 각자의 화풍으로 응중산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임옥상의 '북한산에 기대어 살다(캔버스의 유채 225×740×8cm, 2020)', 권순철의 '백두(캔버스의 유채 248×333cm)', 김종구의 '무거운 구름 산수(캔버스에 혼합매체, 120×220cm)', 이원희의 '봉화설경(캔버스에 유채 130.5×194cm)', 이명복의 'Long Winter(캔버스에 유채 180×360cm)' 등이 전시된다. 박재완 기자

## BBS 개국 30주년 '추억 공모전'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
**행사, 방송 사진 · 영상 등**
**BBS 관련 모든 자료 가능**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자들이 추억하는 불교방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추억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BBS불교방송과 관련한 추억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교방송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자료로 응모가능하다. 행사, 방송현장 사진을 비롯해 BBS불교방송과 관련된 사진, 방송 음원 및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BBS불교방송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시행하는 추억 공모전 최우수상에게 30만원, 우수상(2명) 20만원, 장려(3명) 10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그리고 특선(20명)과 입선은 기프티콘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전시에 활용되며, 사연 및 수기는 BBS불교방송 방송 매체에 소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이철진 승무 강습회 개최

**서울 대학로 스튜디오 SK**
**2월 29일, 3월 1일 양일간**
**이철진 공연 참여 우선권**



전통 승무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철진<오른쪽 사진>이 승무 강습회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습회는 2월 29일과 3월 1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 대학로 스튜디오 SK에서 열린다. 참여 문의(010-3826-4446).

강습회 참여 후 부여받는 해택은 이철진과 함께 승무와 전통춤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철진이 기획하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준비물은 연습복, 장삼, 버선, 북가락 등이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현재 구슬주머니 대표인 이철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이애주에게 사사했다.

1988년 첫 개인발표회 '이철진의 전통춤'을 시작으로 2007년 '보름간의 승무여행', 2010년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등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왔다.

박재완 기자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 모 집 | 교수내용 | 교수진 | 요 일 | 모집인원 |
|---|---|---|---|---|
| 1학년 [상주권공 I ] |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 조현성 스님 | 월 | 30명 |
| 2학년 [상주권공 II] |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 김태호 스님 | 수 | 편입생 약간명 |
| 3학년 [각배] | 각배과정 | 조인각 스님 | 목 | |
| 4학년 [영산] | 영산과정 | 이기봉 스님 | 금 | |
| 불교의식 이론 | 불교의식(이론) | 심만춘 스님 | 화 | ★ |
|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 | |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 “신종 코로나 확산, 기도로 이겨내자”

## 달라이라마, ‘따라보살 진언’ 불자들에 당부

**관세음보살 화신 ‘따라보살’**
**질병 예방 · 마음 평화 진언**
**달라이라마 대중접견 보류**
**티베트 사원도 전면 폐쇄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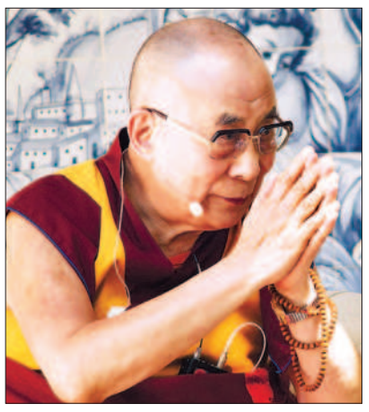
김민재 · 박정현 객원기자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했다. 1월 28일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등의 매체들은 달라이라마 권고한 ‘따라보살’ 진언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28일 오전, 인도 다람살라에서 베트남 불자들을 접견한 달라이라마는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달라이라마는 “오늘 이 자리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과 팔리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이 함께 모였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최근 발생한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서서히 소멸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따라보살’의 진언 독송을 권했다. 티베트불교에서 따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자 33응신 가운데 ‘다라존관음’으로도 알려져 있다.

달라이라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수많은 중국인 불자들이 조언을 구해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불교를 믿어온 국가”라며 이번 기도를 권하는 계기를 밝혔다. 이어서 “불자들 가운데 평소 진언을 염송하는 관습이 있는 이들에게 ‘따라보살’의 진언을 권한다”고 말하며, 직접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쏘하(Om Tare Tuttare Ture Soha)”라고 진언을 먼저 염송했다.


따라보살 진언을 염송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인디안 익스프레스


티베트불교를 대표하는 성지 포탈라궁전. 포탈라궁전을 비롯해 티베트 내 모든 사원과 관광지가 폐쇄됐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달라이라마는 “따라보살의 진언은 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확산을 완화하고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전 세계에서 이 새로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분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도 권고가 공지되자 인도에 소재한 각 티베트 불교사찰 역시 병을 소멸하기 위한 따라보살 기도를 입재했으며, 해당 소식들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이번 접견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대중 접견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달라이라마의 수석비서인 텐진 타클라는 “달라이라마와 일반대중의 접견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는다. 이는 고령의 달라이라마를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지금까지 매주 세 차례 일반 대중과의 접견을 가져왔다.

한편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는 티베트 자치구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망이 뚫리며, 티베트 내 모든 불교사원과 관광지들이 전면 폐쇄됐다. 티베트는 그동안 중국 본토 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

BBC 등 복수의 외신 매체는 1월 29일 티베트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 중국 전역 31개 지역에 전부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티베트의 모든 불교 사원과 인기 관광지가 전부 폐쇄됐다. 폐쇄가 결정된 곳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집이자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1000개의 방을 보유한 ‘포탈라 궁전’을 비롯해,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했던 손챈감포왕이 7세기 중엽에 지은 ‘조캉 사원’ 등이 포함됐다. 달라이라마의 하안거 공간인 ‘노블링카 궁전’도 마찬가지로 폐쇄됐다. 불교 사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음식점, 카페 등도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티베트의 한 시민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거리가 거의 비어있다”며 “대부분의 찻집과 식당이 문을 닫았다. 군중이 모여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또한 1월 27일 이후 티베트에 도착한 모든 관광객들은 14일간 지정된 호텔에 머무르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현재(7일 기준)까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635명이다. 확진자도 3만83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이다. 사망자 경우 전날보다 69명 늘어났고, 확진자는 2447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다음달 15~16일 옌칭(延慶)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스키연맹 가오산 스키 월드컵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다. 모든 여행사의 국내 및 국제 여행 상품 판매도 강제 중단됐다.

# ‘유대인 불교도’ 어떻게 탄생했나

## 유대인연구소 시거로우 박사
## 상반된 두 종교의 접점 분석
## “일종의 대체사상으로 각광”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교와 유일신을 부정하는 불교. 이 두 종교를 조화하는 불교도들이 생겨나 화제다. 지난 1월 31일 미국의 불교전문매체 ‘트리사이클’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어온 젊은 유대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생겨난 ‘유대인 불교도’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집중 조명했다.

대표적인 유대인 불자인 에밀리 시거로우 박사는 지난해 11월 유대계 불자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유대인 연구소에서 현대 유대인사회를 연구중인 시거로우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유대인 불교도(JewBu)’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논문은 “30대 이하의 젊은 유대인들이 불교도로 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히면서 “젊은 유대인들에게 불교는 현대적인 흐름에 참여하며 과학적 가치와 다원주의, 평등이라는 이상과 양립할 수 있는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대인 불교도의 상징. 유대교의 별과 불교의 법륜이 겹쳐진 형상이다. 사진출처=트리사이클

‘트리사이클’은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유대인 불교도들의 특징은 유대인의 생활전통과 불교의 교리를 적절히 융합해 생활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대인 불교도들이 받아들이는 불교는 “불교의 원음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와 번안된 불교”라고 전했다.

이런 관점에서 시거로우 박사는 “유대인 불교도들은 완전한 유대교도도, 완전한 불교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거로우 박사는 유대인 불교도를 유대문화를 유지한 채 불교를 수행하는 부류, 단순히 영적인 풍요를 위해 불교에 의지하는 부류, 유대문화와 불교문화에 구분을 두지 않는 부류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트리사이클’은 박사의 분류를 소개하면서 “불교를 수행하는 유대인들은 불교를 위해 유대교를 떠났지만 대부분 유대교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또 유대교로 회귀한 이들이 “불교의 명상법을 유대교에서 잊힌 영지주의의 부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거로우 박사도 자신의 연구에서 “정결과 부정함을 중요시하는 유대교 문화에서 불교의 명상을 수행하는 많은 유대인 명상가들은 자신이 하는 명상이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거로우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유대교와 불교의 중요한 공통점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꼽았다. 불교가 세계종교로 발전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춰진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디아스포라를 통해 주변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다. 더욱이 유대인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는 주류 유럽계 미국인 공동체 사회와 불균형적인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시거로우 박사는 분석했다.

초기불교가 인도사회에서 크샤트리아와 상인 계급에서 크게 유행한 것처럼, 같은 유일신임에도 불균형을 유지하던 유대인과 미국인 공동체 사회 사이에서의 새로운 대체 사상으로 각광 받은 것이다. 또 시거로우 박사는 불교와 유대교가 서로 만난 20세기는 사회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산티아고 순례길, 불교문화단지 조성

## 스페인 카세레스-네팔 룸비니 양해각서 체결

스페인 카세레스에 거대 불교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역사적인 불교의 발상지인 네팔 룸비니 도시와의 협력으로 ‘세계 평화의 상징’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월 4일(현지시간)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보도에 따르면, 카세레스와 룸비니 시장들은 지난달 초 룸비니에서 만나 두 도시를 쌍둥이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22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0 마드리드 FITUR 국제 관광무역 박람회’에서 공표된 해당 프로젝트는 약 20~30헥타르(ha) 규모의 부지에 정원, 법당, 부도탑, 도서관, 석가모니 부처 유물, 최대 20명 스님을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단지 중심에는 40m 높이의 불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약 2750만 달러 비용이 투입되며, 자금은 사단법인 룸비니가든재단(Lumbini Garden Foundation)이 지원한다.

룸비니 시장인 만모한 찬드리(Manmohan Chaudhary)는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부처의 메시지인 평화와 철학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세레스의 시장 루이스 살라야 줄리안(Luis Salaya Julián)은 해당 단지가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불교단지를 통해 더 많은 아시아 여행객들이 스페인과 카세레스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마드리드에서 남동쪽으로 300㎞ 떨어진 카세레스는 기원전 25년에 형성된 도시다. 인구 약 10만 명에 달하며, 구시가지는 중세 성곽도시로서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가톨릭 교인들 사이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령, 관욕의식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 불교극 계승한 '송광사 연희대본' 발굴

## 민순의 연구원, 〈한국불교사연구〉서 밝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송광사 성보박물관이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진행한 소장유물 전수조사에서 펜글씨로 필사된 불교연극대본 하나가 새로 발견됐다. 이는 전근대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교 대중극의 계승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를 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민순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한국불교사학회 학회지 〈한국불교사연구〉 제16호에 게재한 '송광사 새 발견 연희대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연희대본의 내용을 분석하고 불교문화사적 의의를 고찰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연희대본은 가로 19.3cm, 세로 26.3cm 크기로 백지를 노끈으로 철해 만들어졌다. 안에는 '팔상극'과 '목련극' 두 편의 연희대본이 수록됐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책자는 몇 장의 유실본이 있으며 총 29장, 58쪽이 남아 있다. 이중 '팔상극' 대본은 총7막으로 14장 28쪽 분량으로 기술돼 있다. 이후 31쪽부터 본격적으로 '목련극' 대본이 이어지는데 '목련극각색'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이는 앞선 '팔상극'과는 필체와 잉크 및 펜의 재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민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팔상극'과 '목련극각색'은 각각 다른 사람이 별도로 필사해 합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두 책이 별권으로 존재하던 것을 추후에 합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도 추정했다.

민 연구원은 '목련극각색' 전반을 분석하며 송광사 연희대본의 의미를 살폈다. '목련극각색'의 제작, 유통, 활용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낙서처럼 쓰인 '이장수(李長秀, 1921~1998)'라는 스님의 법명이다. 이장수 스님은 1937년 송광사 사미과를 수료한 이래 1941년 중덕 법계를 송광사서 수지했다. 스님은 1942년 송광사 교무계 서기를 맡아 교역직으로 활동했지만, 1944년 학도병으로 착출돼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다. 이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1947년 환속한 뒤 교육자로 평생을 봉직했다.

민 연구원은 이장수 스님이 대선 법계를 수지한 1938년부터 환속 전인 1947년까지 '목련극각색'을 가지고 활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송광사 출신 화승으로 당대 불교미술계를 풍미했던 금용 일섭 스님의 〈연보〉도 주목했다. 실제 〈연보〉에는 1930년 4월 8일 송광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목련존자 연극에 필요한 무대를 그려 설치했다'고 기술돼 있다.

민 연구원은 "이를 고려한다면 송광사 '목련극각색' 대본은 1930년 이미 발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존재했으며, 1930~40년대 걸쳐 송광사에서 실제 공연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잠정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민 연구원은 김소하가 지은 성극 '우란분'(1932)과도 비교를 했다. 그에 따르면 송광사의 '목련극각색'과 '우란분'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란분'은 3막인데 반해 '목련극각색'은 7막으로 내용이 좀 더 세세하고 플롯에도 차이가 크다. 차이의 연유에 대해 민 연구원은 송광사 '목련극각색'이 〈목련경〉의 서사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서라고 봤다.

민 연구원은 "목련존자 설화에 근거한 대중적 연희는 전통 시대에 이미 널리 행해졌고, 그에 저본이 되는 경전은 〈목련경〉이었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미 〈불설목련경〉의 언해본이 조선 전기부터 유통됐고, 1920년대에도 내용이 다소 증광돼 유전본(流轉本)이 전해진다. 이를 살펴보면 송광사의 '목련극각색'은 〈목련경〉의 내용과 구성을 더욱 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지향적으로 저변화될 경우 목련극 설법 또는 재담의 양상은 시대와 지역문화의 특성에 따라 그 양식이 다양하게 분화됐을 것"이라며 "송광사 새 발견 '목련극각색'은 완전히 세속화돼 연극 형태로 행해진 목련존자 이야기의 설행 양식이자 전근대 이전부터 존재한 불교 대중공연극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는 불교 현장에 행해지고 있던 민중불교적 흐름의 전승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불교사연구〉 제16호에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마주한 현대 한국불교의 도전(박수호 · 중앙승가대) △봉인사 세존사리탑의 이주 내력과 조형(손신영 · 한국미술사연구소)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이성운 ·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철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고영섭 · 동국대) △불교명상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문진건 ·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예술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대안(백도수 · 능인대학원대) 등 연구논문이 수록됐다.



**송광사博 전수조사 통해 발굴**
**팔상극 · 목련극 연희대본 담겨**
**이장수 스님, 소장 · 활용 추정**
**김소하 '우란분'과 차이 상당**
**"전근대 존재한 불교극 계승**
**민중불교적 흐름 전승 의미"**

송광사 연희대본. 송광사 성보박물관이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진행한 소장 유물 전수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기록물이다. 팔상극과 목련극 대본이 담겼다.
사진제공= 송광사 성보박물관

# '2020문화재 돌봄사업' 본격 시작

## 문화재청, 지정 · 비지정문화재 8100여 개소 대상

**문화재 정기 모니터링 등**
**상시 · 예방적 조치 진행돼**

전국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시 돌봄 사업이 올해에도 본격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1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상시 · 예방적 문화재관리 적극행정 시스템이다.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 · 도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 · 도로 전면 확대됐으며 현재는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목조문화재 모니터링 모습.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돌봄사업단(민간단체 공모 수행) 규모, 상시인력 수, 사업 예산 등이 꾸준히 함께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국비 11억 원이 증액된 276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해당 예산들은 작년보다 539개소가 늘어난 8126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 23곳의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인력 730여 명이 고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들도 대부분 전문 인력으로 문화재 수리기능자 210여 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90여 명 등이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 · 모니터링 실습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10주년 사업 기획단' 발족하고 △돌봄사업 10년 백서 발간 △정책토론회 △유공자 표창 △기념식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 불교계 주요학회 학회지 발간 잇달아



불교계 주요학회 학회지가 잇달아 발간됐다.

한국선학회(회장 김방룡)는 학회지 〈선학〉제54호를 발간했다. 심사 논문으로 △마음공부의 현대적 해석(오용석) △정중 무상 인성염불의 증입원리 고찰(덕림 스님) △청허 휴정 선시 연구(원법 스님) △임제선의 주체화와 탈주체화(마해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존재론적 해석(신경 스님)이 실렸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보경)은 학회지 〈보조사상〉제55집을 내놨다. '초기불교 내러티브'를 특집으로 한 제55집에는 △〈디빠왕사〉와 〈마하왕사〉 비교연구(김경래) △〈루빠와띠아바다나〉의 내러티브 연구(정덕 스님)가 게재됐다. 투고논문으로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불상 연구(최선일) △의적 〈무량수경술의기〉와 경흥의 〈무량수경연의술문찬〉 찬술의 선후문제에 대한 연구(한명숙) △한암을 통해 본 한국 근대불교에서 지눌의 위상이 수록됐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학회지 〈종학연구〉 제2집을 발간했다. △간화선 수행의 현황과 제언(금강 스님) △한국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황(김재성) △한국에서의 티베트 불교 마음 수행에 대한 일고(조일문) △명상의 의학적 적용(이강욱) 등이 실렸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김광식)는 '근대불교 공간의 역사성'을 특집으로 〈전자불전〉제21집을 발간했다. 특집논문으로는 △심우장의 어제와 오늘(김광식) △조계사의 창건 과정과 종단 건설(김성연)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창건과 그 의미(황상준) △동본원사 부산별원 그리고 대각사(재점숙)가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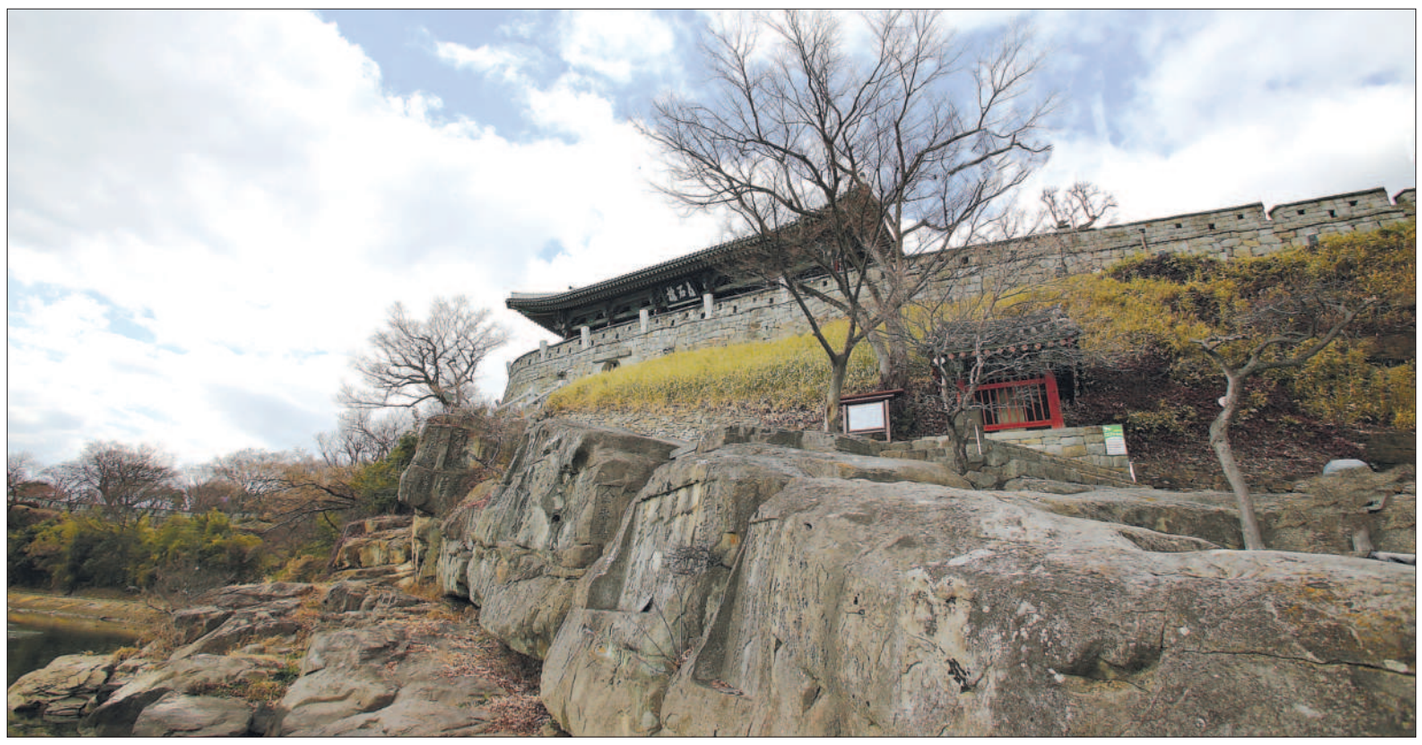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이상근의
**聖寶流轉**
③ 조선 3대 누각과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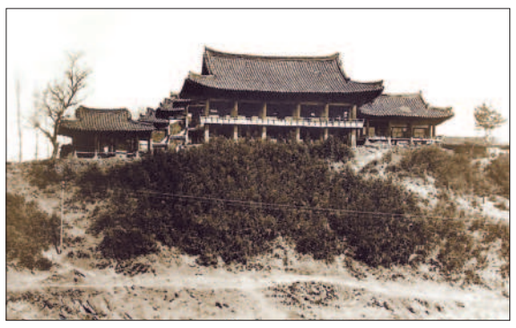
# 사찰 전각, 왜 누각이 됐을까



의암에서 바라본 촉석루 전경. 조선 초 문신인 하륜은 '촉석루는 용두사 남쪽 돌벼랑 위에 있다' 고 촉석루의 기원을 기록했다.



김홍도가 그린 〈평양감사향연도〉 3폭 중 〈부벽루연회도〉 오른쪽에 부벽루가 왼쪽 밑에 영명사가 보인다.



일제 강점기 영남루 전경. 신라 5대 사찰에 들 정도로 대찰이었지만 고려 말기 화마로 폐사돼 누각만이 전해진다.

### 기능과 미의 완성, 사찰의 누각

지금은 대웅전이나 관음전처럼 전각에서 법회를 보는 것이 '상식' 이지만 예전, 그러니깐 임진왜란 이전까지 그런 일은 흔치 않았다. 전각은 오직 예경과 참배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럼 법회는 어디에서 보았을까? 바로 마당이다. 법회를 보기 위해 절 앞마당의 괘불대에 커다란 불화가 걸리고 법석이 차려진다. 그야말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었다.

때로는 마당 대신 만세루나 보제루 같은 이름이 붙은 누각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 대부분 이런 누각들이 대웅전 등 주전각과 일직선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주전각과 어떻게든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이유도 누각이 법회를 보는 장소였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형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늘고, 또 사찰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법당의 '용도가 변경' 됐다. 지역의 유지 집안을 위한 소규모 법회나 기제사가 전각에서 열린 기록이 조금씩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법회를 위한 공간으로 전각을 개방한다. '법당' 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당 내부의 배치와 불상의 조성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온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처님을 모신 불단과 뒷벽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법당에 수용해야 하는 신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불단은 뒤로 쭉 밀리거나 아예 뒷벽과 붙은 형태로 변한다. 덩달아 불상의 조성에도 변화가 왔다. 허리를 곧추세우고 불단에 좌정했던 불상들은 크기가 작아진 대신 '신도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인 형태로 조금씩 변한다.

사찰의 배치도 변했다. 소위 중정식이 유행하게 된다. 뒷산을 배경으로 주전각이 들어서고 주전각의 좌우에 통합된 법당(관음전, 명부전 등)이나 요사채가 들어섰다. 가운데는 마당이다. 물론 대웅전 맞은편에는 여전히 누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ㅁ' 자형의 폐쇄된 구조가 완성된다.

덕분에 의외의 동선과 미(美)도 생겼다. 대웅전을 비롯한 주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누각 밑을 통과하거나(누하진입), 누각 옆을 지나가야(우각진입)하는 형식이 18세기 넘어서 유행했다.

축대를 올리고 그 위 평평한 땅에 전각이 들어선 경우는 자연스레 누하진입이 됐고, 축대 밑과 대웅전 마당의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은 축대 밑에 기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절로 우각진입이 됐다. 특히나 누각 밑을 지나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다보면 서서히 등장하는 대웅전은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면 마치 액자 안에 들어간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 저절로 환희심과 외경심을 불러온다.

여하튼 사찰의 누각은 기능이 조금씩 변한 적은 있지만 여전히 필요해 의해 그 자리에 남았고 또 사찰의 '미(美)' 도 크게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누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조선의 3대 누각이 모두 한때는 사찰이었다는 것이다.

### 영남사와 영명사 그리고 용두사

흔히 우리나라 3대 누각하면 평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루를 꼽는다. 그런데 이 누각들은 한때 사찰의 부속 건물(누각이나 종루)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선 밀양 영남루(嶺南樓)의 경우 사찰에서 그 이름까지 넘겨받은 경우다. 1844년 영남루 중건 때 쓰인 상량문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1953년) 밀양고적보존회에서 펴낸 〈향토문화〉라는 잡지 등을 종합해 보면 영남루는 743년(신라 경덕왕 2)에 임금의 명으로 지어진 영남사라는 절터의 부속 건물이었다. 어떤 자료에는 영남사의 규모가 '신라의 5대 사찰' 에 들 정도였다고 하는데, 물론 근거는 없다. 그런데 1359년(고려 공민왕 8)에 화마가 닥친다. 그 후 6년여 동안 방치되다가 1365년(공민왕 14) 김주라는 이가 밀양 지군으로 부임하면서 남아 있던 '낡고 좁은 누각은 철거하고' 영남루를 만들게 된다.

**임란 前 사찰 전각, 예경 목적**
**법회는 절 마당과 누각서 봉행**
**전란 어려움에 법당 용도 변경**

**부벽루 · 영남루 등 본래 사찰 누각**
**도심의 강변 사찰은 '랜드마크' 기능**
**군사 · 행정부터 비보 역할까지 맡아**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영남루 자리는 영남사의 종루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종루의 이름은 금벽루(金壁樓)였다. 만약 영남루가 영남사의 종각 자리였다면 영남사의 주불전은 영남루에서 바라본 방향에서 좌측에 위치했을 것이다. 현재 영남루 맞은편에는 단군의 위패를 봉안한 천진궁이 있는데 그곳에 영남사의 다른 전각 혹은 요사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사찰이 폐사된 후 천진궁 자리에는 객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가람 배치는 충분히 추측해 볼 만하다. 여하튼 그 뒤로 몇 차례의 화마를 더 맞고 나서 현재의 모습으로 선 건 1844년(헌종 10) 무렵이다.

다음은 평양의 부벽루다. 기록에 의하면 부벽루는 393년(고구려 광개토대왕 3) 세워진 영명사(永明寺)의 부속 정자였다고 한다.

영명사 건립은 철저히 광개토대왕의 의도였다. 392년 7월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백제의 북쪽을 공략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깐 393년 평양에 아홉 개의 사찰을 지을 것을 명한다. '남벌' 이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 왕인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여하튼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영명사는 광개토대왕이 평양에 지으라고 했던 아홉 개의 사찰 중 하나였을 것이다.

영명사는 '현대' 까지 사찰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조선시대 김홍도가 그린 〈평양감사향연도〉에도 그 모습이 보이고 일제강점기의 사진도 남아 있다. 당시 쇠락해 보이던 여느 절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이다. 하지만 역시 한국전쟁은 피해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는 진주 촉석루다. 사실 촉석루가 사찰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안내 책자나 문화재 안내판 어디에도 그런 단서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추측할 만한 기록들이 한두 개 남아 있다.

고려 말 조선 초 문신인 하륜은 기(記)에서 '촉석루는 용두사 남쪽 돌벼랑 위에 있다(樓在龍頭寺南石崖之上)' 라고 해서 누(樓)와 절과의 관계와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기록은 '남유기' 에 남아 있다.

1727년 김도수라는 사람이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관직을 그만두고 쌍계사, 불일암, 칠불사 등을 거쳐 진주에 다다르게 된다. 이때 유람을 끝내고 '남유기' 라는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촉석루가 한때 절터였음을 밝힌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누대는 옛날에 상원루(狀元樓)라고 불렸는데, 용두사(龍頭寺)의 승려인 단영(端永)이 중창하여 백담암(白澹庵)이라고 하였다가 강 가운데 돌이 뾰쪽뾰족한 것을 보고 마침내 이름을 고쳐 촉석루(矗石樓)라 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기록도 용두사의 창건 연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기록을 토대로 추측하면 길게는 신라, 짧게는 고려시대로 잡을 수 있겠다.

사찰을 강가에 만든 이유는?

그런데 혹시 글을 읽다가 궁금해졌을지도 모른다. 왜 강가 절벽 위에 절이 들어섰을까?

일단 강가에 사찰이 들어선 건 단순히 풍광이 좋아서만은 아니다. 평양의 영명사, 밀양의 영남사, 진주의 용두사는 모두 번화가였거나 또는 번화가에서 멀지 않았고, 또 시내 중심부에서 모두 올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초까지 이렇게 사찰을 지을 때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흔적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낮은 건물 속에 우뚝 솟은 탑은 지금처럼 도심에 선 '타워' 기능을 하기도 했다.

또 하나, 군사나 행정적 필요성 그리고 더불어 비보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다. 평양의 영명사나 밀양의 영남사가 '왕명' 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여주 신륵사 등 강가에 세워진 사찰들이 '비보'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있음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제 조선의 3대 누각에서 사찰의 흔적을 찾는 일을 쉽지 않다.

또 하나, 빠지면 섭섭해 할 누각이 하나 있다. 조선의 3대 누각은 앞에 말한 바와 같지만 흔히 '영남의 3대 누각' 이라고 해서 영남루, 촉석루와 함께 울산의 태화루가 언급되기도 한다. 태화루 역시 사찰의 부속 건물이었다. 태화루는 최근 복원이 됐지만 그 터와 규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 꽃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주



변택주의
##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③ 70년대 봄과 스님

"뭔 중이 시답지 않게 글이나 쓰고 있어." 법정 스님이 씨알의 소리나 샘터, 신문에 글을 써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아우를 때 선방 수좌들이 입에 올린 말이다. 도법 스님은 "부모가 죽어도 난리가 나도 쳐다보지 않고 수좌는 오로지 참선하여 끝내 깨달아야 한다며 죽자고 매달릴 때였다. 그때 정서로는 용납되지 않았다"고 돌아본다.

60년대와 70년대에 스승이 던진 말씀은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얼음 선사라던 스승 말결이 세태를 비판하되 꽃을 비롯한 자연이야기가 어우러지게 된 것은 70년대 후반을 지나 80년대에 이르면서였다. 무슨 까닭일까.

### 봄 없다할 만큼 잔인한 1971년 4월

"그럴 리가요? 우격다짐으로 삼선개헌을 한 지가 언제라고…"

"고귀한 4.19 민주혁명 희생을 짓밟고 군인들이 한강을 넘었을 때 이미 이 나라 민주주의는 숨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지요. 여태까진 눈치라도 보는 척했지만, 이제는 내놓고 하고 있어요.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누르고 나면 더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종신 집권을 하려고 기승을 부릴 거예요." 봄이 왔으나 세상에 봄은 없다고 할 만큼 모질던 1971년 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이던 스승과 장준하 선생이 나눈 말씀이다.

편집회의를 마치고 나면 장준하 선생은 차로 스승을 봉은사 다래헌까지 바래다주고 면목동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어느 날 장준하 선생은 전에 없이 스승 방에까지 들어와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하겠다고 말씀한다. 함석헌 선생과 장준하 선생에 이어 세 번째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1971년 4월 19일 군부독재 장기집권에 맞서겠다며 돛을 올린다.

같은 해 10월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인사를 중심으로 '64인 지식인선언'을 내고 총통제 분쇄, 학원탄압 중지, 구속학생 석방, 대학생 강제 입영 중단, 대학을 점령한 군인을 철수시키라고 다그쳤다. 박정희 정권은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더니 이듬해 10월 종신 집권으로 가려는 뜻을 굳히고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거침없이 나아간다.

세상은 온통 불 난 집이었다. 재야 민주화 집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스승은 집회하다 종로경찰서에 끌려가기도 여러 번. 한 번은 조사하는 이가 윽박지르고 무릎을 꿇리며 반말지거리를 해대며 으르딱딱거렸다. 조계종 총무원이 바로 코앞이었으나 누구 하나 넘성하지 않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달려와 서장에게 이리 대접할 분이 아닌데 어딜 꿇어 앉혔느냐면서 호통을 쳤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오면서 책방에 들러 수필집을 살 만큼 책을 가까이한 스승은 '홀로 있음은 보랏빛 외로움이 아니라 본디 제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거듭 사람들을 일깨우는 글을 썼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 사람을 옹글도록 하여 스스로 일어설 때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때 박정희 정권은 스승이 두고두고 가슴앓이하도록 만든 몹쓸 짓을 저지른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른바 제2 인혁당사건이 그것이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으로 종신 집권을 노리자 학생과 시민이 나서서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을 펼친다. 그러자 도예종을 비롯한 몇몇 사람을 잡아다가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긴 때가 1975년이다. 군사 법정은 이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18시간 만에 여덟 사람을 사형시킨다. 스승은 "죄 없는 이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조작극이라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자, 보란 듯이 서둘러 사형을 집행한 것"이라면서 가슴을 친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도록 한 반체제운동이 어떤 뜻이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스승은 뒷날 "민주화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증오심이 생기더라. 내 마음에 독을 품는 게

**71년 4월 군부독재에 항거**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참여**
**글 하나하나 시국의식 담겨**

증오심인데 '이래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괴롭고 중노릇하는 내 본분이 뭐냐고 스스로 물었다. 본디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에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한다. 불자들이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앞세운 것이 '산목숨 죽이지 않기'로 오직 '살림살이'에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뜻있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민주인사 대부분은 정권이 모질게 굴면 굴수록 드세게 맞서야 한다고 여겼다. 이때 스승은 '비록 억눌림에서 살아갈지라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저다움을 드러내어 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던 끝에 조계산 자락에 암자를 짓고 내려간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결에 따라 받아들인다.

불일암으로 내려간 뒤로 스승은 서울살이할 때보다 더 자주 글을 쓰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나는 이것을 글을 써서 사람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울러야 하겠다고 굳게 다지셨다고 받아들인다. 물러선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이루는 방법이 군사정권을 드잡이하는 데서 여느 사람을 보듬어 살리는 데로 나아간 것이다. 사람을 억눌러 숨통을 조이는 밑바탕에 죽임이 있다면 죽임에 맞서는 것이 살림이다.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란 뜻이 고스란한 살림살이는 숨통 트기에서 비롯한다. 민주화, 사람이 사회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억누름에 맞서 싸우는 길이 그 하나이고, 사람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아우르는 마음 살림으로 나아가는 길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람들 마음 결을 보듬어 누리 결을 바꿨듯이, 스승은 여느 사람 마음을 보듬어 살리기로 뜻을 돌렸다.



법정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그 뒤로 스승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답답한 시절. 꽃이 피었는지 철이 깊어지는지도 모르며 시달리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아무리 모진 시국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연에 깃든 아름다움조차 느낄 줄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이 바탕에서 70년대 중반을 넘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태 비판 글과 아울러 '쉴 줄도 알아야 한다'나 '거꾸로 보기', '아빠 바람이 달아', '무심코 피고 지다'처럼 마음을 보듬는 글을 풀어낸다.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암자 하늘에 뜬 구름이나 겨우살이 하는 짐승들과 물과 먹이를 나누는 얘기나 꽃 이야기를 더욱 많이 나눴다.

### 꽃망울 터지는 소리로 마음 적셔

"우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다. 돌아보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들과 어울려 산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머니 누리, 땅이 있고, 우리 목숨줄을 이어주는 푸나무가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벌레와 짐승들이 있다. 작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두꺼비 한 마리와 어울릴 줄만 알아도 너끈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스승은 잎을 틔우기 전에 꽃을 먼저 피워 올려 겨우내 시달린 목숨붙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화처럼 '중이 시답지 않게 글이나 쓰는' 까닭을 드러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잔잔하게 풀어주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살림 이야기가 거칠고 모진 세상 한복판에서 휘둘리며 쩔쩔매는 여느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이며 더없는 그늘이었다.

스무 해가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신영복 선생은 한겨울 독방에서 두 시간이나마 쬘 수 있는 신문지 크기만 한 햇볕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었다고 돌아봤다. 싸늘한 감옥 생활에서 잠깐 드리운 햇빛이 살아갈 힘을 주듯이, 사람들은 이따금 샘터나 신문에서 만나는 스승 가슴을 거쳐 살아나는 시냇물 소리이며 매화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로 메말라가는 마음을 적셨다.

"내 오두막 둘레는 지난해처럼 노란 마타리꽃이 피어나고 있다. 산바람에 하늘거리는 마타리 꽃은 가을 입김을 머금고 있다. 꽃이 피어나기 전에는 마치 기장 조(차좁쌀) 같은 모습인데 꽃이 피어나면 밤하늘에 은하수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양을 더 자세히 보려고 확대경을 들이대면 비록 작은 꽃이지만 꽃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주라는 생각이 든다. 꽃도 작은 꽃이 아름답다."

강원도 오두막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낸 마음 자락이다. 니체도 차라투스트라 입을 빌려 말한다.

"작은 것만으로 얼마나 넉넉한가. 또렷하게 가장 작은 것, 가장 부드러운 것, 가장 가벼운 것, 살랑거리는 도마뱀 소리, 숨소리 하나, 날갯짓하나, 눈짓하나… 작은 것들이 더없는 안락을 누리고 있다."

스승은 굳이 꽃을 찾아 나설 것 없이 오가는 길가, 손바닥만 한 뜰, 돌층계 틈 핀 꽃을 건성건성 스치지 말고 곁에 앉아 꽃잎 하나하나, 꽃술과 꽃받침까지 놓치지 말고 낱낱이 살펴보며 꽃향기를 들어보라고 말씀한다. 꽃향기를 들어보라는 말씀에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꽃과 가까이하면 슬그머니 꽃 같은 삶이 된다고도 하셨다.

"저 꽃 이름이 뭔지 알아?"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지? 가까이 들여다봐야 보이니까. 순수하면서도 끈질긴 들꽃이라고."

길상사 행지실로 가는 길목 야트막한 곳에 소복하니 피어 있는 조그맣고 하얀 노루귀를 가리키며 스승이 던진 말씀이다.

우리는 너나들이 순수하면서도 끈질긴 들꽃이다. 〈작가〉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br>• 최종성적증명 1부<br>• 입학신청서 1부<br>• 여권용사진 10부 |
| 석사과정 | 3년 | 5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20년 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 달마 이전 선수행, 통치계급이 지원



현견 스님의
## 중국 선 문화기행 Ⅱ
### ③ 중국 초기의 禪僧 단체의 실태



그림 · 강병호

중국의 선종하면 제일먼저 떠오른 것은 달마대사의 커다란 눈과 덥수룩한 수염 및 소림면벽이 떠오른다. 특히 한국에서는 달마 이전의 중국선법 및 단체에 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도 연구된 바도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 불교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선종이 태동하기 전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초기에 여러 종류의 선법과 선승단체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물론 중국에 유입된 초기 선법은 이후 중국선종에서 발생된 달마선 →조사선→공안선→문자선→간화선→묵조선 등과는 차별점이 존재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중국선종에는 분명히 초기 선법의 잔해 및 자양분이 투영되어 있다. 다만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세존께서 선정을 통해서 성불하셨듯이, 禪수행은 일체중생들이 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관문이다. 경전에 보면 세존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도 항시 많은 상수대중들과 함께, 때로는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아란야에서 결과부좌를 하시고 선정에 들곤 하셨다. 아란야(阿蘭若)는 범어로 'aranyaka'의 음역이다. 의역하면 적정처(寂靜處), 공한처(空閑處), 무정처(無淨處), 원리처(遠離處), 공처(空處) 등으로 칭한다. 즉 세존의 제자들이 항상 모여서 수행을 하던 장소로 지금으로 보면 불교사원을 말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초기불교에서도 사람들이 집단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전의 말미에는 항상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정경이 그려지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또 한편 인도의 불교 유적지에서도 집단적으로 수행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아잔타석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신장자치구에는 지금도 인도의 아잔타석굴과 같은 크고 작은 석굴들의 유적이 남아 있다. 비록 석굴안의 벽화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당시 승려들의 수행 모습을 그린 회화가 남아있다.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고 나서 처음부터 선수행을 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산발적으로 선수행이 이루어 진 것 같으며,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모여서 선수행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물론 처음부터 선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니고, 후에 중국선종에서 표방했던 조사선의 성질을 지닌 선법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최초로 선수행을 하는 단체가 생겨난 시기는 언제일까? 기록에 의하면 동진 시기에 인도승 각현(覺賢 · 佛陀跋陀羅)이 일찍이 장안성에서 선업(禪業)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이때에 구마라즙 또한 장안에 있었는데, 또한 그를 따르는 문도가 3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각현은 남방에 이르러서 여산혜원의 도움으로 사찰 내에 선림을 건립했다. 이것이 중국 남방의 최초 수행집단 출현이다. 혜원(慧遠 · 334-416)은 이미 많은 대중과 염불정토 결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북방에서는 선수행을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구마라즙을 따르는 무리들 이외, 북위 시기에 일찍이 현고(玄高)라는 승려가 주도하는 선수행 무리들이 출현한 적이 있다. 현고는 각현의 제자로서 〈고승전〉에 보면 수백 명이 넘는 무리들로 구성된 선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영도자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 승단은 선수행을 하는 일정한 장소가 없었고, 또 때로는 기이한 의식 내지 행동으로 대중을 현혹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때로는 누차 통치자들로부터 환대를 받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여러 번 통치자들로부터 내몰림을 당하기도 했다. 현고 본인이 조정의 간섭으로 인해서 마침내는 위나라 태무제(太武帝)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의 제자들도 쫓김을 당해서 각자 분산되었으며, 최후에는 모두 남방으로 가서 새롭게 발전하였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현고의 법을 계승한 인물로 일대 명승인 불타(佛陀) 혹은 발타(跋陀 · 위의 각현과는 다른 인물)라고 칭했던 인물이 있다.

북위 효무제(孝文帝) 시기에, 현고의 뒤를 계승한 불타(佛陀[跋陀])가 이끄는 하나의 승단이 생겨났다. 불타발타는 선종의 발원지인 소림사를 창건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중국 선종과는 직

**각현, 남방 최초 선수행단체 설립**
**북위 통치자 대부분 불교 신봉해**
**승실의 '安心禪法' 북방서 성행돼**
**'공관' 닦는 천태종에 실상선 등장**

접적인 관련은 없다. 5세기에 중국에 온 그는 먼저 북위의 평양(平壤) 구도(舊都)에 머물렀으며, 효문제의 예경을 받았고, 황제는 그를 위해서 선림을 건립했다. 또 국가가 재원을 충당해서 그로 하여금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여 선수행 실천을 도왔다. 북위가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한 후에 불타발타도 함께 따라갔다. 효문제는 그를 위해서 사원을 건립하였는데 그곳이 바라 그 유명한 숭산 소림사이다.

불타발타가 이끄는 승단과 현고(玄高)가 주도했던 승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불타발타의 제자들은 모두 정해진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수행을 하였다. 때문에 비로소 통치계급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꼭 통치계급이 본인들의 국가 통치 수단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역사적으로 북위 정권의 통치자 대부분은 불교를 매우 신봉하였다. 비록 그들이 통치자의 계급에 속하지만, 불교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나약한 중생으로, 신앙적으로 승보를 공양한다든가 해서 공덕을 쌓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특히 효문제가 불타발타를 위해서 사원을 건립한 것은 기타태자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세존께 기증한 것 같은 예라고 생각된다.

불타발타의 제자 가운데 승조(僧稠) 역시 당시 승단의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불타발타로부터 선을 배웠다고 전해진다. 불타발타는 그를 높이 평가를 했다. 〈속고승전〉에 의하면 "총영의 동쪽에서 선학의 최고는 그 사람뿐이다"고 했다. 위나라 효문제 역시 그를 특별하게 대하였으며, 그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선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승조는 선수행에 있어서 매우 높은 경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사방에서 명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또 그는 위(魏)와 제(齊) 두 나라 조정으로부터 예경을 받았으며, 황실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양을 받기도 했다.

북위 시기에 승단의 영도자로서 승실(僧實)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승실은 인도승인 륵나마제(勒那摩提)의 제자였다. 륵나마제를 의역하면 보의(寶意)이다. 그가 주도했던 선수행은 '안심법문(安心禪法)'이다. 이 수행법은 어떤 때는 염불선(혹은 관세음을 염하는 것)으로 선수행을 하였다. 역시 황실의 지지와 공양을 받았다. 북방에서 매우 성행하였다고 한다. 다만 달마대사가 말하는 '안심법문'과 문자는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안심법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천태종의 실상선(實相禪)의 기초도 이 시기에 발생되었다. 즉 실상선은 천태종의 수행법으로 보리달마의 수행법이 유입되기 전부터 이미 중국에서 태동하였고, 초기 선법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선법을 체계화 시키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선의 내용 및 사상, 역사 등의 자체에 대한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요 및 중요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실상선은 〈중론〉 〈지도론〉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을 바탕으로 공관(공관 · 실상관)을 닦는 선법이다. 구마라즙이 전한 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혜문(惠文:535-557) 혜사(慧思:514-577) 지의(智顗 · 583~597) 선사가 서로 전승하고 계승해서 설립한 중도실상선(中道實相禪)이다. 즉 혜문은 〈중론〉 〈지도론〉을 의지해서 선법을 창시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空) · 가(假) · 중(中)' 등은 이경(理境 · 이치를 체현하는 경계)을 수행하는 관법이고, 〈지도론〉을 바탕으로 하는 '삼지일심(三智一心)' 혹은 '일심삼관(一心三觀)'을 바탕으로 일경삼제(一境三諦), 즉 삼제원융(三諦圓融)인 제법실상(諸法實相)에 이르는 체험 관법수행이다. 지의선사는 혜문 혜사의 이러한 관법수행을 계승해서, 본인의 지관 수행법 체계를 확장 발전시켰다.

지의선사는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에서 '두 가지의 수행관이 있는데, 하나는 대치관(對治觀)으로 오정심관 가운데의 부정(不淨) 자비(慈悲) 계분별(界分別) 수식(數息)관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正觀(정관)으로 제법무상(觀諸法無相)을 관하는 것이다. 즉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형상은 모두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며, 실존하는 자성이 없는 관계로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소멸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도 영원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곧 실상을 관하기를 권하는 수행법이다. 즉 유상관(有相觀 · 현상)을 통해서 무상관(無常觀 · 본질 실상)에 진입하게 하는 관법수행을 말한다. 그러니까 유아(有我)의 집착으로부터 무아(無我)의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상선(實相禪)의 핵심 의제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초기에 나타난 문자로 기록된 선승단의 중요한 시기는 남북조(南北朝)시대였다. 이것은 북방에서 선수행이 유행하던 풍조로, 곧 선정을 중시했던 그 당시의 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된 이면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조정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며, 당시의 통치계급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초기 선법에 대해서 황실의 구성원 및 조정의 사대부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당시의 선승들이 초기 선법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계율이라든가, 승려로서 직분을 충실히 소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위에서 언급한 승단들이 통치계급 및 황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여일하게 그들의 외호와 우대 내지 예경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때로는 관방으로부터 압력과 제제를 받기도 했다.

〈동국대 강사〉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제품명 | 신묘장구대다라니 | 42수진언 |
|---|---|---|
| 크기 및 가격 | 사찰용 100,000원<br>가정용 80,000원 | |
| | 사찰용 65×145cm<br>가정용 45×110cm | |
| 색상 | 그린 · 레드 | 그린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佛心이 빚어낸 생생한 전설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 ③ 3대 성지 전설 속 불교

미얀마는 전국 각지에 수많은 파고다(Pagoda, 탑)가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 사이에서 "미얀마 여행의 시작과 끝은 모두 파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많은 파고다가 세워질 때는 각각 중요한 뜻이 담겼겠지만, 세월이 흘러 그런 의미가 온전히 전해지는 탑은 많지 않다.

미얀마에 여행을 오는 지인들이 간혹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처럼 꼭 가봐야 하는 불교 성지가 있을까?"라고 현지서 유학을 하는 나에게 물어본다. 그럼 나는 주저 없이 미얀마인들의 3대 불교 성지인 마하무니 파고다(Mahamuni Pagoda), 짜익티요 파고다(Kyaiktiyo Pagoada),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를 순례를 권한다. 이 파고다들은 미얀마인이 태어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방문하는 성지다.

미얀마인들은 이 세 곳의 파고다에 전해지는 전설을 통해 현재까지도 파고다에 대한 영험을 불어넣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파고다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까지도 그들이 불교를 굳건하게 신앙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개인적으로 크게 놀랐던 것은 단순히 불교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파고다를 세운 인물들의 불심(佛心)을 따라 자신들도 같은 행(行)을 하고 싶어 하는 점이다.

### 부처님 생전 모습 친견

이러한 행(行)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것은 만달레이에 위치한 '마하무니 파고다(Mahamuni Pagoda)'다. 빨리어로 '마하(Maha)'는 '위대한', '무니(Muni)'는 '부처님'을 뜻한다. 위대한 부처님이라는 뜻을 가진 마하무니 파고다의 전설은 아라칸 왕조(BC 554)의 불심에서 시작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라칸 왕국의 수도인 단야와디(Dhanywadi)를 제자인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500명의 비구와 함께 방문하여 법(Dhamma)을 설했다. 아라칸 왕국의 싼드라 쑤리야(Sandra Thuriya) 왕과 싼드라 말라(Sandra Mala) 왕비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후 크게 감동했다. 이후 부처님의 불법(佛法)이 아라칸 왕국에 지속되기를 기원하고자 부처님의 이미지를 본 뜬 불상(佛像)을 만들기를 간청했다. 부처님은 왕의 간청을 들은 뒤 이를 허락했다. 부처님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담긴 마하무니 불상은 심신이 깊은 다른 왕조의 미얀마 왕들이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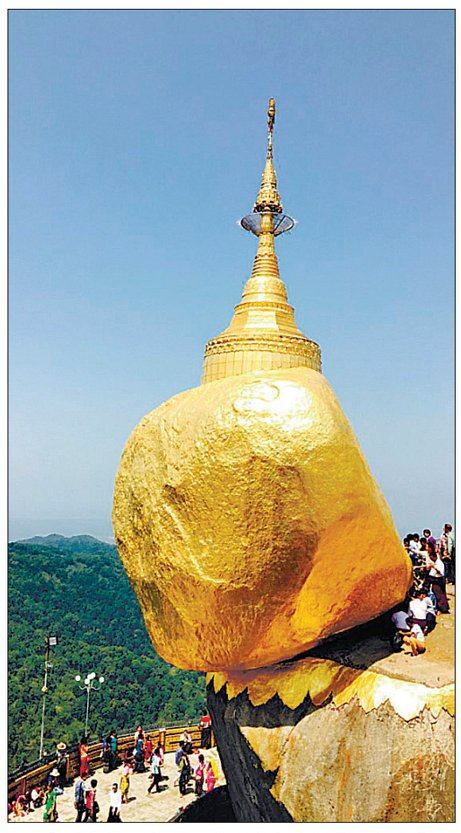
바간(Bagan)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아노야타(Anawrahta, 1044~1077) 왕은 아라칸을 정복한 후 마하무니 불상을 가져오려 했지만 실패한다. 이후 네 번째 왕인 알라웅 시뚜(Alaungsithu, 1113~1160) 왕도 시도했지만 운송 문제로 불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1784년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꽁바웅(Konbaung) 왕조의 보도파야(Bodawpaya, 1782~1819) 왕이 아라칸 왕국을 침략하면서 마하무니 파고다를 당시 수도인 아마라뿌라(Amarapura)로 운송하여 현재 미얀마 만달레이를 대표하는 파고다가 되었다.



부처님 생전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는 마하무니 파고다의 불상. 매일 새벽 세안식이 진행된다.



쉐다곤 파고다는 전설에 부처님과 국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고다와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금박보시를 할 수 있다.



정령의 도움을 받아 절벽 위 바위에 세워진 짜익티요 파고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하다.

21세기를 사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마하무니 파고다는 부처님의 생전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새벽 4시가 되면 스님을 비롯한 우바새(남자 재가신자)들이 마하무니 부처님 세안식을 시작한다. 아쉽게도 우바이(여자 재가신자)들은 마하무니 부처님 앞에 그어진 일종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세안식을 참관할 수는 있지만,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세안식이 끝나면 세안하고 남은 물을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선다. 이 물을 지니고 다니면 자신의 삶에 부처님 공덕이 가득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 절벽 끝 세워진 바위 · 탑

마하무니 파고다와 더불어 미얀마 사람들의 또 다른 불교 성지는 짜익티요 산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짜익티요 파고다(Kyaiktiyo Pagoada)'다. 천 년 전, 몬주 북부의 왕에 의해 건립된 짜익티요 파고다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와도 아직까지 갈라지거나 무너져 내린 적이 없어 미얀마 사람들은 이곳에 부처님의 영험이 담겨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영험을 뒷받침해 줄 전설을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천 년 전, 몬주 북부의 왕은 산속을 걷다가 수행하던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 스님은 자신이 부처님 머리카락 3개를 갖고 있으니 자신의 요구대로 파고다를 세우면 머리카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님의 요구조건은 자신의 얼굴모양 바위를 찾아 탑을 세우는 것이었다. 불심이 깊던 왕은 정령의 도움을 받아 바다 아래에서 바위를 발견, 짜익토산 맨 꼭대기에 바위를 옮기고 그 위에 부처님 머리카락을 받아 탑을 건립했다."

**전설 속 인물 行 따라하려**
**살면서 꼭 찾아가는 파고다**
**미얀마인들 불교 신앙 배경**
**고루하기보다 생명력 담겨**

해발 1100m가 넘는 곳에 짜익티요 파고다가 있지만, 부처님 가피를 느끼기 위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불자들이 험난한 산을 트럭에 의지해 오른다.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부처님께 공덕을 쌓기 위해 금박을 보시한다. 절벽에 위치한 짜익티요 파고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아쉽게도 우바이들은 다른 파고다와 마찬가지로 직접 금박을 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님과 우바새를 통해서 부처님께 금박을 보시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엄격하게 스님 곁에는 여성이 가까이 갈 수 없다.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건 남성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만을 생각하고 미얀마 큰스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갔다가 재가자들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다.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미얀마 불교 전통에서 여성이 직접 금박보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추측해 본다.

### 남녀 구분 없는 열린 파고다

마지막 3대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수식어이자 전 세계 대통령들이 미얀마 양곤을 방문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다. 쉐다곤 파고다의 높이는 100m, 둘레는 426m이며 가장 큰 탑을 중심으로 약 100개가 넘는 불탑과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불탑 안에는 다양한 부처님들이 안치되어 있다.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의 상징을 언급할 때 '쉐다곤 파고다'를 빼놓지 않는다. 미얀마 사람들은 보름날 혹은 명절을 비롯하여 생일 등 개인의 기념일이면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한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이자 문화의 상징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부처님과 왕' 혹은 '스님과 왕'의 인연으로 시작하는 다른 파고다 전설들과는 다르게 '부처님과 국민'의 만남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부처님은 미얀마 우까라빠(Ukkalapa)에서 인도에 무역을 하러 온 '따뿌사(Taphussa)'와 '발리카(Ballika)'라는 형제 상인을 만난다. 그들은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들은 후 크게 감명을 받아 공양을 올리고 불자가 되었다. 두 형제는 자신들의 고향인 우까라빠에 부처님처럼 모실 무언가를 청하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었고,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부처님 머리카락을 왕에게 바쳤다. 왕에게 머리카락을 바치는 순간 하늘과 땅이 울렸으며, 하늘에서 온갖 진귀한 보물이 떨어졌다. 또한 곡식과 각종 작물들이 풍성하게 열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은 왕은 백성들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릴 수 있게 부처님 머리카락을 묻은 후 그 자리에 탑을 세웠다."

부처님 머리카락이 안치된 쉐다곤 파고다는 여러 왕들의 보시를 통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마하무니 · 짜익티요 파고다에서 여성이 금박을 보시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쉐다곤 파고다에 안치된 불상에는 여성도 금박을 보시할 수 있다. 전설의 시작이 부처님과 일반 국민의 만남에서 시작했기에 쉐다곤 파고다만큼은 다른 곳과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금박을 직접 보시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전 부처님 모습이 담긴 마하무니 파고다, 부처님 머리카락 3개가 안치된 불가사의한 짜익티요 파고다, 두 형제 상인의 불심으로 시작된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 사람들의 숭고한 불심으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생생하게 전하는 성지로 남게 되었다.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간절한 불심을 통해 전설이 현재에도 살아 숨 쉬게 했다.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불교 유적과 전설에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스스로를 반성해본다.

〈양곤대 박사과정〉




# 法을 물었다가 매를 맞다



##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⑥ 불법(佛法)의 대의

임제가 법좌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佛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불자(拂子)를 세워 보였다. 물은 스님이 할(喝)을 하니 임제가 바로 때렸다. 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또 불자를 세웠더니 스님이 할을 했다. 임제가 또 할을 하니 스님이 머뭇거렸다. 임제가 바로 때렸다.

"어떤 것이 불법(佛法)의 대의냐?"고 묻는 말은 〈임제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또는 '부처가 무엇이냐'는 물음과 같은 말이다.

서양의 어느 학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자기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선수행' 이야말로 정체 파악을 위한 공부다.

질문을 받은 임제가 말을 하지 않고 불자(拂子)를 세워보였다. 불자란 '먼지털이' 혹은 총채처럼 막대기 끝에 긴 털을 묶어 달아 놓은 기물이다. 원래는 모기나 파리 등 벌레를 쫓는 기구로 사용하던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번뇌를 털어 없앤다는 상징물이 되었다. 주장자와 마찬가지로 선사들이 법거량에 자주 사용하던 물건이다. 이것이 불법의 대의이니 보라는 듯이 물은 스님에게 세워 보였다는 말이다. 질문자가 할을 하고 임제도 할을 한다. 임제의 할에 물은 스님이 머뭇거리니 임제가 한 대 때리고 만다. 잠시 무언극이 연출되었다. 선문답(禪問答)은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초월하여 뜻과 뜻이 통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임제 당시 9세기 선사들의 법거량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임제가 말했다.

"대중들이여, 무릇 법을 위하는 자는 몸과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느니라. 나는 스무 살 때 황벽선사가 계신 곳에서 세 번 불법의 적적한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 몽둥이를 맞았는데 쑥대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 지금도 다시 한 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누구 나를 위해서 좀 때려줄 사람 없는가?"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임제가 방망이를 그 스님에게 주었다. 그 스님이 잡으려 하거늘 임제가 바로 때렸다. 임제가 대중을 향하여 공부인의 정신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 몸과 목숨을 버릴 각오로 공부에 임하라 하면서 자신이 스무 살 때 돌아간 스승 황벽의 처소에서 세 번 물었다가 세 번 맞았다는 옛이야기를 꺼내준다. 이를 요약 '삼도문법(三度問法) 삼도피타(三度被打)'라 하여 〈임제록〉의 대의처럼 드러내 놓기도 한다. 더 줄여서는 '삼도피타'라고만 말하기도 한다.

'법을 물었다가 매를 맞았다' 이 속에 불법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때려줄 사람 없느냐고 묻는다. 매를 맞고 싶다는 것 아닌가? 한 스님이 "제가 때리겠습니다"고 나선다. 임제가 몽둥이를 건네주려 하다가 받으려니 도리어 한 대 때려버린다. 여기서도 알 수 없는 선극(禪劇) 화면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른바 선문답의 말이나 동작은 말의 논리를 떠난 불가사의한 것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 윤회, 붓다도 예외 아니었다



## 세상 속 경전읽기

⑥ 선혜(善慧)와 연등불(燃燈佛)

불교에는 '윤회'가 있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붓다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한 법[初轉法輪經]의 주내용이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세속의 삶을 모두 고(苦)로 본다[一切皆苦].

태어나는 것도 '고'이다. 따라서 이 고해를 벗어나는 길은 윤회를 그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윤회를 벗어나 붓다가 되려면 수많은 윤회 전생(轉生) 동안 수행을 해야 한다. 석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석가의 전생(前生)을 다룬 것이 자타카(Jataka, 本生)이다.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은 율·경·논장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 중 경장(經藏)은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인 〈쿳다까 니까야(Khuddaka Nikāya, 小部)〉에 들어있는 '붓다왐사(Buddhavaṃsa, 佛種姓經)'가 붓다의 본생(本生, Jataka)담이다.

본생담의 서론에 해당하는 니다나카타(Nidāna-kathā, 因緣譚)는 '먼 인연담', '멀지 않은 인연담'과 '가까운 인연담'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 인연담'은 석가모니의 알려진 전생 중 최초인 수메다(Sumedha, 善慧)가 디팡카라(Dīpaṃkara, 燃燈佛)께 수기(受記)를 받는 장면부터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로 도솔천에 태어나기까지이다.

'멀지 않은 인연담'은 도솔천의 세타케투(Setaketu, 護明) 보살이 탁태(托胎)할 장소를 살피는 장면부터 보드가야에서 깨달아 일체지(一切智)를 얻기까지를 말한다.

'가까운 인연담'은 깨달은 후 일곱 장소[七禪處]에서 7일씩 선정에 들어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에서부터 제따와나(Jetavana, 祇園精舍)에 들기까지를 말한다.

선혜보살은 4 아승지 십만 겁(劫) 전에 아마라바티(Amarāvatī, 不死城)에서 부유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다. 조실부모 후,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조상들이 죽을 때 재산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음을 알고, 큰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전재산을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분뇨 속 같은 세속에서 썩어질 몸을 버리고, 불사(不死)의 완전한 깨달음의 연못으로 나아가고자 출가수행자가 되었다.

설산 기슭에 경행처(經行處)를 닦고, 나무 밑동에 의지해 머물고, 야생과일로 끼니를 때우며, 행주좌와 간에 정진해, 7일 만에 4선4정(四禪四定)과 5력[信·精進·念·定·慧力], 신통력을 얻었다.

이 때 여래십력[如來十力, 부처만이 갖추고 있는 열 가지 지혜의 능력. 1)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 2)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 3) 모든 선정에 능숙함. 4)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 10)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을 갖춘 연등불이 출현하여 철위산이 진동하였으나, 선혜는 선열(禪悅)에 잠겨 알아채지 못하였다.

연등불이 40만 명의 제자들과 유행하다가, 람마(Rammāvatī, 喜樂城)의 수닷사나(Sudassana, 善現精舍)에 머무셨다.

람마성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법문을 듣고, 다음날 공양청을 한 후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연등불이 지나가실 길을 단장하느라 시끌벅적한 것을 하늘을 날던 선혜가 보고 무슨 일인가 물어 자초지종을 듣고, 길 닦는 일을 나누어달라고 청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선혜보살의 신통력을 익히 알아, 물로 패인 힘든 곳을 맡겼다. 선혜는 공덕을 짓고자, 신통력이 아닌 노역으로 일을 하는 중에 미처 웅덩이를 다 메우기 전에 연등불 일행이 그곳으로 오고 계셨다.

이에 선혜보살은 진창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 자기 몸을 다리 삼아 연등불 일행이 디디고 가도록 하였다.

연등불께서 불안(佛眼)으로 선혜보살이 먼 후일에 성불할 것을 살피시고, 싯달타로 태어나 성불할 것을 수기(受記)하셨다.

**"이 견디기 힘든 고행을 하고 있는 행자를 보라. 그는 지금으로부터 4아승지 10만겁이 지난 후 고따마라는 부처가 되리라."** 〈쿳다까 니까야 붓다왐사〉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㊷ 이해의 길 32

# 인도서 사라진 불교

오래 전 대학에서 '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담당할 때의 일이다. 그 강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당시 종교별로 조를 짜서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불교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조금 놀랐다. 불교를 힌두교의 한 유파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불교 관련 글을 참조한 것 같았다.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힌두교에 흡수되어버린 아픈 역사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었다.

2천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도 정신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불교는 13세기 초에 인도에서 소멸하게 된다. 불교는 인도에서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고자 한다. 불교는 외적으로 이슬람의 무력에 파괴되었고, 내적으로는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힌두교에 무너졌다. 이 아픈 역사가 오늘의 한국불교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이슬람 세력은 10세기 말경부터 인도의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침입을 시작한다. 그리고 12세기 말에 이르면 인도는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까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교 신앙의 공간인 수많은 사찰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1203년에는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비크라마시라(Vikramasila) 사원이 이슬람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그곳 승려들 또한 목숨을 잃게 된다. 이는 불교의 소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침략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소멸했다는 설명은 너무 단편적이다. 아무리 수많은 사원이 파괴되었다고 해도 불교의 가치를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했더라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인도의 전통과 문화였던 불교가 그리 쉽게 무너질 수는 없는 법이다. 불교와 같은 시대에 발생했던 자이나교는 지금까지 면면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는 내적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못하고 힌두교에 흡수되면서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걸었다. 힌두교의 화신(化身, Avatar)사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인도인들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Brahma)와 유지의 신 비슈누(Vishnu), 그리고 죽음의 신 시바(Shiva)를 가장 선호한다. 여기에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서구의 직선적 사유가 아니라 창조와 유지, 소멸이 계속 반복되는 동양의 원형적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의 신 비슈누는 물고기나 거북이, 왕자 등 10가지 모습(身)으로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였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인도인들에게 역사적 붓다는 비슈누 신의 아바타(Avatar)였던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힌두교의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체성이 상실된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대승불교가 포용성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승은 불교의 대중화라는 명분으로 비불교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수용하였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적 색채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예컨대 대승 후기에 등장한 밀교는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성적 행위를 수행에 활용하는 좌도밀교(左道密敎, Tantric Buddhism)로 변질되고 말았다.

불교 소멸의 역사는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시 회통이란 명분으로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 비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은 점집이 아니라 절집이다. 자기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불교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포용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우리를 성찰해야 한다. 이것이 아픈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제14기- 수강생 모집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2020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부터 새학기를 새롭게 수업을 개강합니다.

수업형식 첫 입회비 20만원, 수료1년과정, 무료특강 (2년코스)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 아침예불/종성.도량석 ▪ 사물다루는법 중점(목탁, 요령, 북, 태징)
▪ 작법종류 *(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명발)

교육시간표 매주 금요일 ※수업은 시간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 | |
|---|---|---|---|
| 오전 9시 | [천도재] 법원스님 | 오후 1시 | [교양과목 호적] 시우스님 |
| 오전 10시 | [천도재] 법원스님 | 오후 1시 | [매화역수] 도연스님 |
| 오전 11시 |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명발 | 오후 2시 | [매화역수] 도연스님 |
| | | 오후 3시 | [북 타법 ] 원기스님 |
| | | 오후 4시 | [타로] 홍주 강사님 |

수업준비물 필기도구, 보이스레코더는 필수, 바라

교육문의 사무총장 원기스님 010-5306-0856

교육장소 주 소 :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일죽면 고은리) 봉운사
전화번호 : 031-674-6397
오시는길 : (카카오맵) http://kko.to/Bh3yjBIj0

중요 행사문의 -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3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송운스님 010-8828-0108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 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갈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 | |
|---|---|---|
| 가루 자죽염 | 125g | 40,000원 |
| 가루 자죽염 | 230g | 73,000원 |
| 알갱이 자죽염 | 125g | 43,000원 |
| 알갱이 자죽염 | 230g | 78,500원 |
|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 20g | 7,500원 |

| 2번 구운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18,000원 |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 250g |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280호 | 17 | 전면광고

화를 내면 공덕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공덕을 막아버린다. 무명을 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 •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 • •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 효보당 108사주 사주비법 완전전수

(포인트"엑기스" 위주로 가장쉽게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한손으로 잡을수 있도록 강의해드림)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인생, 인체의병,영가,일년신수,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 미래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 종단기관지 양도

**종단 기관지**
**(신문·잡지)**
**양도합니다.**

010-5412-8040

## 지장성모님 예불동참

만불사는 지장보살어머니 신행중심 국내의 지장신앙 불자 다문화가족 한국방문시 숙식무료, 관광쇼핑 다문화가족 친정마트 사업지원 가족불 100만원 / 법당불 50만원 탱화별도 1인1불, 저작권 있습니다.

**귄佛寺종무실**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 ?

**특수한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 | |
|---|---|
| 가로 | 45cm |
| 세로 | 32cm |
| 높이(뒷면) | 8cm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비구·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찰전경사진 내외 각2장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 • •

공양주
모십니다.

• • •

010-4448-3750

##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010-3747-8692

##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 황토장뚜껑 지점모집

- 기후변화에도 장맛을 지켜줌
- 뚜껑을 열지않고 볼수 있습니다
- 과학적 설계 가운데 유리가 부착

**3종류 각 300개씩, 선불 30일후 배송**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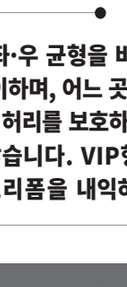
♣ 치유농장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문의 043-745-3332

## 인연을 찾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창영, 대지 : 453평
- 사찰등기 해드릴수 있습니다.

심우사
010-3753-784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br>◆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br>◆**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br>◆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br>◆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280호 | 18 | 전면광고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장엄론경》에서

##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 외
◎ 요사 : 60평, 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 토굴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밀양 초동. 토지 : 1136평. 관리지역
- 가액 : 1억6천 (은)1억5천

010-9906-3631

##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연엽산자락
- 대지 : 150평. 전 1,050평
- 건물 : 25평(경량철골구조) 창고:6평, 마을끝 자락 위치. 조경완료.비구니스님최적
- 가액: 1억7천만원

010-3518-3958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부곡시장윗시장상가2층 (약35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보증금 2천만 월40만
- 시설비 협의후 결정

010-9430-1356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오산3길 29 ● 대지 175평, 요사 30평(방3,주방, 거실,다용도실,욕실,에어컨,엠프 등 최적의 시설완비) ● 법당 대웅전 15평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외부화장실(남,여), 창고 5평 ● 수려한 조경과 태양광 설치로 전기세 월 5천원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금 1억포함)

010-8947-6370

##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149-88번지(애당리 467)
- 법당1개, 요사채2개 밭5천평, 산2만천평
- 가액 : 5억원
- 아래에 봉화댐 조성중

010-5421-7624

##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3422-3232

##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창말5길 28-6
- 사찰대지300평, 법당22평, 삼존옥불, 소불108불 ● 요사체 약40평, 종무소8평, 산신각2평 ● 약사여래불4평, 용왕당2평, 실내화장실3곳, 야외화장실2곳 ● 태양광, 태양열2조 ● 가액 : 3억 7천5백만원 ● 은행대출 6천만원

010-8982-4479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옆
- 건물 2층(약30평)
- 삼존불, 호신불 다수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517-2357

## 도심속 명당 사찰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대지 : 216평
- 주택(판넬) : 50평
-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주택구조), 조경, 주차완비
- 가액 : 9억 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 사찰·전원주택지 안내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5분거리 ● 총면적 : 20,496㎡ ● 가액 : 11억(대출금5억포함) ●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내곡지구 개발 땅값상승) ● 3억주시면 등기부이전해드림 ● (잔금 전원주택 개발 분양후 완납) ● 10,000㎡ 사찰보존 ● 10,496㎡ 전원주택 개발 분양후 잔금완납요망 ● 사회복지원 및 타용도 변경가능함,사찰앞 4차선 확장공사중

010-9647-0723

## 사찰안내

- 의정부시 가능역 사거리
- 평수 : 25평(방1)4층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77만(부가세포함)
- 시설비 1천만원(100%완벽 A급)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차장 완비

010-5497-3885

## 좋은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 사찰안내

- 위치 :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 포교원 할분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남향코너
- 보증금 2백만원
- 월 55만원
- 권리금, 부가세 없음

010-5381-1419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최고요지, 지하철 5분~10분거리
-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 창고2, 화장실2, 요사채 30평, 방2, 다용도실1, 샤워실1, 창고1
- 가액 : 3억 3천 성업중(가격절충)

010-6565-2042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

##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대구지사 | 손문철 | M 010-2813-8008 |
| 부산지사 | 이도경 | M 010-5640-8883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M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M 010-8642-7733 |
| 경남지사 | 성낙두 | M 010-3860-7008 |
| 영주지국 | 박영애 | M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봄바람 타고 온 자비의 쌀

### 광주지역 사찰들, 입춘 자비나눔

광주지역 사찰들이 입춘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의 쌀을 기탁하며 따뜻한 봄기운을 전했다.

비구니도량 신광사(주지 동현)는 2월 4일 입춘을 맞아 지역 불교단체에 자비의 쌀 1,550㎏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신도들이 입춘기도를 맞아 보시한 쌀로 빛고을나눔나무, 자비신행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지역본부, 외국인복지센터 등에 각각 전달됐다.

동현 스님은 "광주불교의 보배 같은 불교단체에 쌀을 전달하는 것은 큰 공덕이다. 이 쌀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불교단체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도 입춘에 앞서 2일 쌀 1,300㎏을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7일 대웅전에서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보시한 1,200㎏의 쌀을 불교단체와 지역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지장 스님은 "신도들 가정의 평안과 소원성취의 염원을 담은 자비의 쌀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좋은 복 밭으로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불교聯, 봉축 율동강습회

### 사찰 · 연희단에 60회 율동 보급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2월 1일 회관 법당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2020 빛고을관등회' 의 첫 준비단계인 봉축율동 전체 강습회를 개최했다. 오는 4월 25일 열리는 빛고을관등회 본 행사에 앞서 신도와 연희단이 함께 진행할 봉축율동은, 이날 강습회를 시작으로 60여회의 사찰별 · 연희단 율동강습회를 거쳐 완성된다.

올해 광주지역 등단별 율동은 서울 연등회에서 제작한 △연등 들어 밝히자-1등단 △환희의 노래-2등단 △바라밀-3등단 △연등축제-전체율동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어린이(부처님이 좋아요), 청소년(손잡고 빙글빙글), 청년(I love Buddha) 율동도 함께 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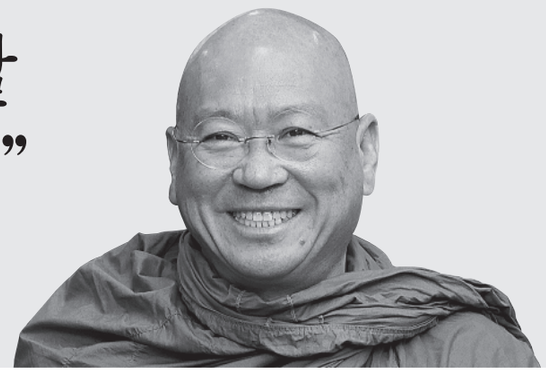
장현덕 불자는 "춤도 추고 노래를 함께하는 봉축행사가 더 활성화돼 즐거운 불교행사를 보여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 운영에 만전"

**Interview**

**물라상가 법인대표 붓다팔라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지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조계종-물라상가 6일 MOU**
**대웅전 등 공사기간 2년 예상**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질 한국사찰 분황사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불교의 시작점인 부다가야에서, 불교의 핵심인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일환으로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을 추진 중인 조계종이 통도사 청하문도회 인도법인 '물라상가' 와 2월 6일 MOU를 체결했다. 현지에서 분황사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라상가에 권한을 일임한 것이다. 청하문도회는 앞서 분황사 건립을 위해 30억 원에 달하는 인도 현지 토지를 기증한 바 있다. 이날 물라상가 법인대표인 붓다팔라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부다가야 현지에서도 한국사찰 건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다가야에는 전 세계 50개국의 불교가 들어와 약 200개의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할만한 사찰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외국불교계가 한국불교계의 사찰 건립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붓다팔라 스님에 따르면 인도 현지에 종단 차원은 아니지만 일부 한국사찰과 교육시설이 있다. 기원정사 앞 천축선원, 부다가야 고려사와 사띠 스쿨, JTS 수자타 아카데미, 쿠시나가라 대안사, 바라나시 녹야원 등이 세워졌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분황사는 대웅전을 비롯해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순례를 하며 머물 수 있는 요사채, 인도 현지인을 위한 보건소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국과 인도 현지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과 물라상가는 분황사의 공사기간을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부다가야에는 수행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띠 스쿨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 부지의 일부를 할애해 분황사가 세워질 예정인데요. 사띠 스쿨은 학교 위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찰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분황사 건립으로 수행공간과 지도자 양성이 어우러지면 세계적인 명상센터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붓다팔라 스님은 1975년 출가해 동국대를 졸업, 통도사를 본사로 수행해왔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청하당 성원 스님(1927~2001)의 뜻을 따라 인도불교 복원을 위해 인도로 건너가 20년 넘도록 활동하고 있다. 현재 물라상가 법인대표와 사띠 스쿨 총장을 맡아 인도불교 복원, 수행지도자 양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스님은 앞으로 세워질 분황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한국의 스님과 순례자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건립되는 분황사 불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국불교가 인도불교를 재건하는 데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스님 · 불자기업인 '자비행' 귀감

**진안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
**기장군청에 쌀 1만㎏ 기탁해**

스님과 불자기업인이 소외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공헌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은 1월 29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부산시 기장군청을 방문, 오규석 군수에게 '사랑의 쌀' 7,000㎏(백미 700포)를 기탁했다.

또한 2월 7일 모전리 일대에서 '무사고 안전 노동자를 위한 영산대제' 를 봉행해 3000㎏의 쌀을 추가로 이웃에 나눴다.

전달식에는 태고종 전북종회의장 법전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후원에 참여한 ㈜주일건설 박용주 대표, ㈜혁신금속 이경희 대표, ㈜디자인칼라 정양섭 대표, ㈜소노아키 손정영 대표, 군청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기장군 '사랑의 쌀' 전달식.

박금태 회장은 "회사의 경영철학인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를 기장군민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께 감사드린다. 저희 회사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정어린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성산업개발은 2010년 설립돼 토목 및 주택건설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6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후원하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6,000여포의 백미(60여톤), 6,000여장의 연탄 등 각종 물품들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미얀마 양곤의 고등학교에 1억 원을 들여 건물 2개동을 건립하고, 지난해에는 베트남 닥락성의 초등학교에 50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천연암반수를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 정수식수대' 건립을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나눔 등 국내 · 외에서 마이산 탑사와 함께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생명나눔, 홍보위원 위촉

### 1월 30일 본부 회의실서 총 11명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30일 본부 회의실에서 신규 홍보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이날 △김경(삼성생명 팀장) △유정례(세븐일레븐 점장) △김정주(뮈샤 대표) △손준호(삼성 D/S 개발 총괄이사) △최원준(前국민은행 부지점장) △장태정(굿모닝 보청기 대표이사) △오미주(코리아뮤직 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신성민 기자**

## 제7회 국제스키캠프 성료

### 불교스카우트연맹, 4개국 대원 모여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1월 29~31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리조트에서 한국, 타이완, 홍콩,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어린이 · 청소년 120명이 참가한 제7회 국제스키캠프를 개최했다. 캠프는 스키 강습을 비롯해 △국제친선의 밤 △가야금 병창(박소연 대원) △대관음사 및 직지사팀 공연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 아동문학회 작가상 시상

### 유현상 · 임여선 · 권대자 시인 등 수상




한국아동문학회(회장 김용섭)는 1월 17일 서울 종로 파노라마뷔페에서 '제42회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이날 유현상 시인의 동시집 〈어! 누구 엄마야?〉를 비롯해 임여선 시인의 동시집 〈무슨 색일까?〉, 권대자 시인의 동시집 〈청개구리 구슬 세는 날〉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장림사
• 주 지 : 성 각 (속명 : 최용태)
• 주 소 : 경북 경산시 정림로 42-5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대한불교일련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불교 전통의식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종무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합니다.
강주 민지효스님은 기초부터 각종 범패의식을
십여년간 강의해온 노하우 실력으로 알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 범음범패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로 기초적인 의식을 강의하여 절 살림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며 아직 초발심인 스님을
위하여 휼륭하신 은사님을 소개하여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분은 홍익 범패단으로
입단하여 회원으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모십니다.

■ 개 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선금

지효스님 010-4466-3575
종무원 송과장 010-9610-8505

| 교육기간 | 강 사 | 교육내용 |
|---|---|---|
| 3월, 4월 (2개월) | 지효스님 | 1교시 도량석 새벽 종송<br>2교시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br>3교시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
| | 혜우역학원 원장 | 4교시 구궁법,명리학 |
| 5월, 6월 (2개월) | 지효스님 | 1교시 거불, 사시불공, 조석 예불<br>2교시 시다림, 장례의식<br>3교시 구병시식, 방생의식 |
| | 혜우역학원 원장 | 4교시 명리학 |
| 7월, 8월 (2개월) | 지효스님 | 1교시 천도재 의식<br>2교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br>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
| | 혜우역학원 원장 | 4교시 명리학 |
| 9월, 10월 (2개월) | 지효스님 | 1교시 천도재 의식<br>2교시 천수바라, 화의재 바라<br>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
| | 혜우역학원 원장 | 4교시 명리학 |
| 11월, 12월 (2개월) | 지효스님 | 1교시 천도재 의식<br>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br>3교시 천수바라, 요잡, 화의재 |
| | 혜우역학원 원장 | 4교시 명리학 |
| 1월, 2월 (2개월) | 지효스님 | 1교시 천도재 의식<br>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br>3교시 바라작법 |
| | 혜우역학원 원장 | 4교시 명리학 |

부산 종무원장 자관 | 강주 민지효

## 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 〈3〉 분노에서 해방되기

# 분노는 '중독', 끊으면 '지혜'



기독교 수도사들, 나중에는 학계의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축적된 방대한 서양 심리학 문헌에는 분노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분석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아비달마불교 심리학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불교의 분석이 전능한 신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붓다는 '창조주' 신을 만났지만 그 신이 전지전능하지도 않았고, 결국 우주를 창조하지도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붓다는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은 망념과 무지에 대한 정신적 중독, 또는 착각에 대한 정신적 중독이라고 선언했다. 이 망념은 자아를 절대적, 독립적인 물자체로 오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망념이란 다른 모든 것들도 절대적, 독립적인 본질이라든가 실체를 가진다고 오인하는 것에 상응한다.

이 뿌리깊은 망념에는 본능적인 형태와 개념적 형태가 있다. 이 망념은 사람을 고정된, 절대적 본질적으로 실재하는 자아와 실재하는 우주가 서로 대립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 넣음으로써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자아는 병듦, 늙음, 죽음, 고통, 상실, 고뇌 등등을 겪으며 존재들과 사물들의 우주에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자아 중독이라는 이 근본 망념은 신을 거대한 생명에너지로 해석한다면 교만의 대죄에 더 가깝다.

나는 여기서 불성(佛性)이라 불리는 '깨달음'이 어떻게 망념의 극복으로 이해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붓다는 자신 안에서 망념적인 습관 패턴, 자아를 절대화하는 습관 패턴이 본능적, 지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정말로 실체적이며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에 도전했다.

그는 강도 높은 비판적 통찰과 집중력을 사용해서 심신복합체를 해부했는데, 결국 자신안에서 어떠한 절대 자아의 발견에도 실패함으로써 망념을 극복했다. 그러나 그는 몇몇 현대의 유물론자 사상가들이 그랬듯이 단순한 무를 자아로 보는 식으로 그 실패를 고착화 하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아 발견 실패의 결과로서 자아의 완전한 상대성, 전적인 상호연결성, 실체없음, 즉 가상성 등을 이해했다.

이런 이해가 그를 자유롭게 해서 자신의 상대적이고 가상적인 자아를 진행 중인 생생한 작업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었다. 이 생생한 작업은 실제 무한히 확장해 가는 탁월성의 지평들과 진화를 위한 무한한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이는 붓다의 위대한 과학적 돌파의 핵심, 그리고 그의 개인적 진화의 성취에 대한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 설명되었기를 바란다. 분노 에너지를 정복하고 난 뒤 그 에너지 전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본 착각, 즉 자아 망념에 따라오는 두 번째 정신적 중독은 욕망중독이다. 여기에는 정욕, 탐욕, 탐식이 포함된다. 일단 자신이 외롭고 고유하고 분리된 자아로서 우주와 대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능한 한 우주의 많은 부분을 자기 것으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말하자면 승산이 반밖에 없어도 전 우주를 삼키려는 시도를 상상해보라. 그 것이 아무리 헛된 시도라고 해도 말이다.

이러한 망념과 불만의 상태에 따라오는 세 번째 정신적 중독은 분노다. 분노는 자신 안에 편입되기를 저항하는 우주에 대한 분노, 자신이 우주에 의해서 먹힐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분노, 자신의 망상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대립적인 우주를 단번에 파괴하고 싶은 분노다.

이 세가지 망념, 욕망, 분노는 어떤 형태의 심리학 목록에도 항상 들어가는 삼독이다. 다음은 교만인데, 이 것은 자기를 절대시하는 망념에 뒤따르는 자기몰입이다. 그 다음은 우리의 오랜 벗인 질투인데, 이 것은 다른 이의 행복이나 행운에 대한 원한이다.

**망념, 대립의 절망적 상황 초래**
**욕망 중독과 원한으로 이어진다**
**해방된 감정, 지혜 에너지 전환**

초기 내면과학에서 전하는 다른 목록에서는 여섯가지의 근본 번뇌로 망념, 욕망, 분노, 교만 다음에 마지막 두 번뇌로서 광신적 견해와 의심을 꼽는다.

광신적 견해와 의심이라는 인지적 중독은 우리의 미혹된 마음의 습관을 표현한 것이다. 광신적 견해는 완고하고 절대주의적이며 독선적인 믿음, 확신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의심은 마음이 헷갈리는 혼란에 빠져서 도대체 어떤 한 방향으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복수의 방향들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한 것이다. 광신적 견해는 비판적 고찰을 방해하고, 의심은 해탈로 이끄는 통찰을 방해한다.

여섯가지 근본 번뇌 다음에는 이 근본 번뇌로부터 파생된 스무가지 수번뇌(隨煩惱)들이 있다. 이들 체계 중 가장 유명한 체계에서는 분노의 뿌리서 파생된 네가지 번뇌인 공격성, 원한, 악의, 폭력이 존재한다. 이 네가지 수번뇌는 모두 분노에 의해서 부추겨지는 것이다. 공격은 분노가 다른 이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신구의를 움직이는 것이다. 원한은 증오하는 적에게 복수하려는 갈망이다. 악의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폭력은 다른 이를 해치려는 일반적 경향이다.

마지막으로 5중 구도로 이뤄진 또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 것은 최근까지도 대개 밀교로 여겨졌던 가르침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근본 번뇌들이 정복되면 그 것들의 에너지가 해탈한 삶의 기초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한다.

근본 번뇌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망념이다. 망념이 이해와 지혜에 의해서 파괴되면 다른 번뇌 에너지들인 욕망과 분노 등도 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순수 에너지들은 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복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것들은 더 이상 중독이 아니라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 중독이란 당신에게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것을 오래는 주지 못하므로 당신으로 하여금 점점 더 원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당신을 더욱더 좌절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지혜가 당신을 자아-절대화하는 망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 주체와 객체를 각각 단단한 덩이로 응결시키던 에너지는 상대화되어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망념 자체는 거울처럼 비추는 지혜가 된다.

그리고 욕망 중독은 연결성의 에너지가 되어 각각을 구별하는 지혜가 된다. 이는 루비와 같이 붉은 불의 원소가 되고 식별의 과정에 해당한다. 교만 중독은 평등하게 보는 지혜가 된다. 토파즈 같은 금색 물의 원소, 지각의 과정에 해당한다.

질투 중독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가 된다. 에메랄드 같은 초록색의 바람의 원소, 정신작용의 과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분노중독은 궁극 실재 완전 지혜가 된다. 사파이어 같은 파란색의 허공의 원소, 의식의 과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망념에서 해방된 각자(覺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심오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지혜의 에너지로 달라져서 나타난다.

이 지혜의 에너지는 인지의 방식이 되어서 생사 전체와 상상도 못할 지복으로 넘친 합일을 색깔, 형태, 물질, 마음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해방된 자비심에 의해서 촉발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우주를 재조직해서 모든 중생이 각자 지고의 잠재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 안으로 그들의 중생을 감싸 안게 된다.

하지만 그 세계 창조에 대한 복된 전망이 아무리 경이롭다고 해도 망념이 지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우선 분노와 같은 중독을 길들이고 정복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에너지들이 안전하게 재배치될 수 있다.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



#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 마음의 근본은 절대로 한계가 없다

**신도1(여)** … (녹음 안됨)

**큰스님**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있는데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누구냐고요? 당신이지 누구예요? 일체만 생명이 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공해서 이렇게 돈다고, 같이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가. 그랬는데 내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남의 주인공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신도1(여)** 근데 저는 기독교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요, 거기선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도 인간들의 죄가 많아서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스님** 이거 보세요. 옛날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불이라는 건 어떠한 걸 뜻하겠습니까? 우리네 생명, 즉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지 누가 심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명은, 개구리의 생명도 댁의 생명도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은 개구리의 생명도 댁의 생명도 둘입니까, 하납니까?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깐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둘입니까?

**신도1(여)** 아니, 그런데요, 쭉 캐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생겼을 때 그걸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관하세요. 그럼 댁이 어디서 온 걸 알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온 걸 알 테니까요. 우주의 근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댁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팡이 삼아서 모든 것을,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거기다가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자 공이니까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그리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의정 나는 게 있으면 안으로 굴리면서 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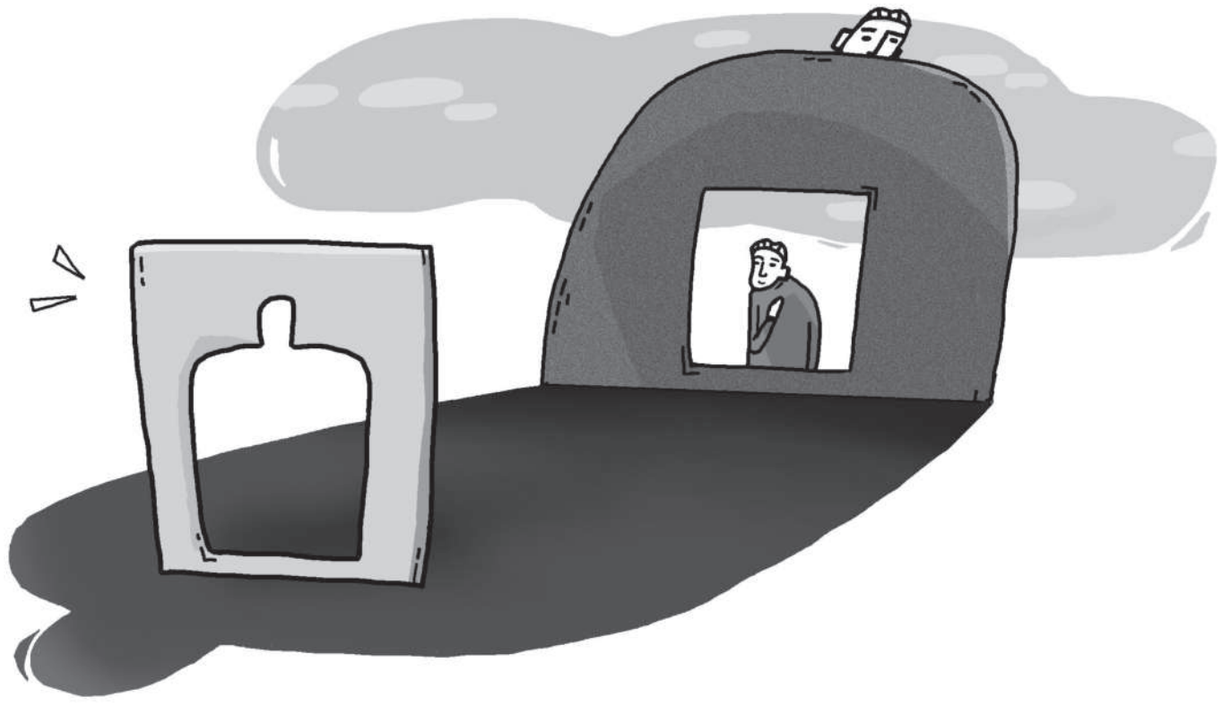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신도1(여)** 그, 생각만 하면 그게 깨쳐지는 거예요?

**큰스님** 참…. 그 생각 모든 걸 전체 다 맡겨 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림살이가 다 댁이 이날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참나가 어딨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그러고, 말로만 그냥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없이, 생각 자체를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나 드나 하여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일러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신도2(여)** 부처님의 근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은 삼라만상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렇다 저렇다, 돌고 도는 물과 같은 것이지마는 말 한마디 규정해서 아퀴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서 내가 알면은, 아는 대로 안다는 것을 세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화할 수 있으니 그것이…. (잠시 사이)

이전도 아니요, 이후도 아닙니다. 단지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 돌 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근본, 근본" 하지만 모든 게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세울 게 없으니 어디로부터 세울 게 없는 게 생겨났는지…. 하여튼 모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자꾸 무르익어서 남이 먹기 참 맛있다고 하리만큼 익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 내가 한층 더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는 이것은 계단이 없으면서도 한 계단이 있고 "한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려워라. 두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어서 알고 두 번 죽어서 몰랐더니 세 번 죽고 보니까 알고 모르고 흔비백산이 돼 버렸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당치도 않은 말을 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줄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고.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억겁을 거쳐서 진화가 돼서 나왔지마는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의해서 모든 게 귀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어저께 콩씨였더니 오늘에 보니까 금방 콩나무가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억겁을 거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이 몸 하나 난 것이, 전체 그 습을 두리둥실 뭉수리처럼 다 짊어지고 안고 이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전자에 살던 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 하면 여자의 행동을 하는 습을 가졌고, 남자라 하면 남자의 습을 가졌고, 또는 애들하고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하면서 어른이라는 습을 가졌고, 또 어른을 보면 나는 젊은이라는 습을 가졌습니다. 살림살이의 모든 전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이날까지 살아온 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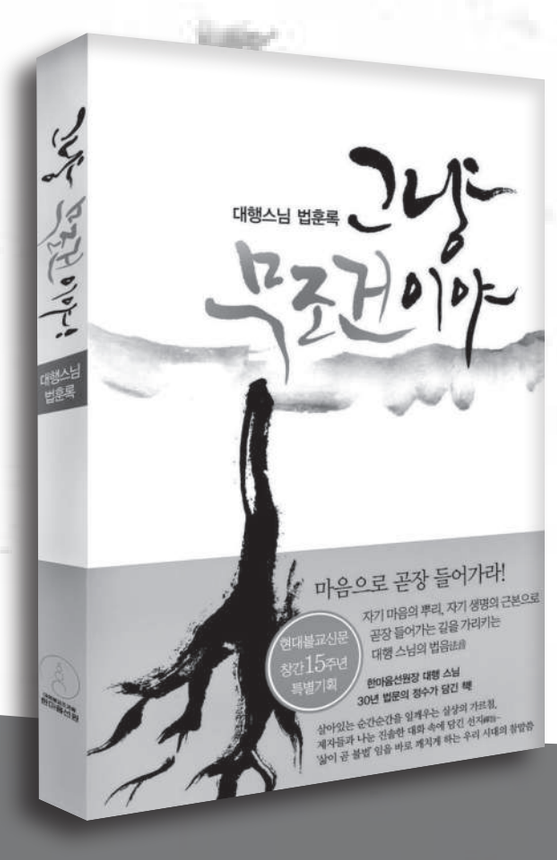
사람이라는 두 마디 글자는 똑같지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원이 똑같은 바가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넝마도 있고 깡통도 있고 무쇠도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서로 만나서 사는 것도 서로 모이는 모임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자기의 습대로 자기 차원의 모임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과라고도 합니다. 자기 습에 의해서 인과를 짓고, 인과를 지음으로써 또 그 습을 떼지 못하면 그게 유전으로 변화하고, 유전으로 변화한다면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아끼고 그러던 착을 둔 데에 유전성이 거기에 꼭꼭 붙어 돌아가고, 항상 얽히고설키고 그렇게 붙어 돌아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끄달리면서 이렇게 여직껏 내려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이 습을 모두 뗀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공이요, 또는 내 몸도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붙을 데가 없는데 떼려고 하는 게 어디 붙을 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거는 어딨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것이 어딨겠느냐." 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육조 스님은 "틀이 없는데 면경이 어딨으며, 면경이 없는데 때 앉을 게 어딨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일체 대의적으로 근본을 두고 말을 한다면, 근본 자체도 만약에 세울 게 없다면 그 소리는 상당히 누가 되는 문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래는 있다 없다가 흰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 사람의 그 생명이 있는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공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놔라

☞ 21면에서 계속

거, 일체 유생 무생의 그 만 사람의 마음의 꽃이 향기로써 이 우주를 덮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떻고 저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갈라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의 향기와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어질고 도의, 의리,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지혜 높은 그런 넓은 사람이라면, 또는 이 도리를 알아서, 공한 도리를 알아서 자기의 아상도 세우지 않고 욕심도 착도 두지 않고 둥글둥글 걸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법신이자 부처인 것이죠.

그래 한암 스님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스님께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스님께서는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암 스님 말씀이 거기에서 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모르니까 "당신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나도 그것밖에 모르오.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나도 알지." 하시더랍니다.

사람은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폭발이 된 문제들을 신문에서도 보고 또 테레비에서도 보고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물질적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 탄 사람이나, 탄 사람의 몸이나, 탈 수 있는 집이나 역시 물건이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의 근본은 절대로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의 그 능력과 무한의 그 생동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인간이 그 도리를 안다 하면 몸을 나라고 하기 이전, 참나로 하여금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호응하면서 공용하면서 어느 고장이라도, 어디든지 보고 듣고 가고 오고, 가고 오지 않으면서도 가고 올 수 있다고요. 빛보다도 더 빠르고 말로 세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찰나, 한 찰나. 각자 여러분 마음 깊이 한 찰나선은 그렇게 생동력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받치고도 남고 굴리고도 남고 들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서 서로 응용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갖은 각색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다 찰나찰나, 바로 찰나, 번갯불 같은 찰나선입니다. 어떻게, 한다 하리까, 하지 않는다 하리까? 없다 하리까, 없지 않다고 하리까? 있다 하리까, 없다 하리까? 그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에, 바로 한 찰나선에 우린 번갯불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이 뜻을 이날까지 가르쳤건만 오늘날에 참, 그 가르친 마음의 선맥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어느 스님네들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차원은 실과가 만 가지 맛이 나듯이 만 가지의 차원이 있으니 그 차원의 그릇대로 우리는 바로 자기가 산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모두가 텅텅 비어서 한계가 없고 무한의 능력이, 자기가 한다 안 한다 말 없이 항상 늠름하고 여여하게 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실상으로 여여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찰나찰나 고정된 게 없이,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행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서 모든 게 찰나찰나 자기가 화해서 돌아가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게 있어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니, 바로 그 공이면서도 찰나찰나 여여하게 해 나가는 것이 세울 게 없으면서도 여여하지 않으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의 무전자와 더불어 유전자, 유전자와 더불어 이 물질, 육신과 삼합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을, 우리는 무전자나 유전자 이런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내 몸뚱이, 말, 생각 그저 이걸로써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죠? 그러니 구덩이에 빠지니 압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가는 건지 그것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혜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혜가 없다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깁니다. 어느 때 우리 신도님 한 분이, 그 아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서 있다가 나중에 모범수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도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어느 아무개 아무개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가르쳐 줬지요.

내가 내 주인공을 '주인공' 하고 부를 때는 내가 그 아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주인공도 되고 내 주인공도 되고 한꺼번에 합쳐서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속으로 '주인공!' 하면 벌써 그 아들과 나와 같이 한데 합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주인공!' 하면 벌써 그렇게 되니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런 것도 생각지 마세요. '아들이 나왔으면….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내 여기 간절하게 본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뭘 또 해 달라 말라, 응? 잘되게 해 달라, 못되게 해 달라 이런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생각을 거푸거푸 해야 됩니까? 내가 소원 풀 수 있는 그 생각은 벌써 여기 간절하게 본래 있는데! 그럼 덧붙이기로 벌써 두더기가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깐 내가 본래 아는 거에다가 '아휴, 주인공!' 하면 한데 합쳐지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것도 겉으로만 하는 게 아냐. 마음속으로 '주인공' 하면 벌써 거기에 다 한데 부합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는데 뭐 해 달라고 안 해 달라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직속 놓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어치정어치정, 어물어물하다가는 치입니다.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한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어치정어치정하다가는 벌써 치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다 보십시오. 명동 거리에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어치정어치정하다가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금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게 그 쪼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갈 길은 못 가고 싸우다 볼일 못 보지, 한 발 떼다 볼일 못 보지, 또 그러면 이쪽에서 치이지, 그러면 싸우지, 이러다가 한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있어야 부처를 이루지 육신이 없고야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그건 왜냐하면, 육신이 없고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만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육신이 없어서 부닥침이 없어. 더하고 덜함이 없어. 이거는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내가 체험하고 배울 게 없거든. 진화될 수가 없어. 계발될 수도 없고. 내가 뭐, 물건이 있어야, 물건으로 상대가 있어야 어떻게 해 볼 텐데, 더 발전이 되고 계발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영이라는 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거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생시에 살다가 차원에 따라서 삼차원이다 하면 삼차원대로 그냥 있고, 이차원이다 하면 이차원에 그냥 있고, 머물러서 더하고 덜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차원에서 생산이 될 뿐이에요. 원소가 무쇠라면 무쇠로 물건을 해서 생산을 할 수밖엔 없는 거죠. 금이라면 금대로, 원소가 금이니까 금에 의해서 반지를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바로 생산을 해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차원도 차원대로, 죽으면 몸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다, 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생산이 돼 나와도 고 차원에서 나와야 되니까, 고 차원끼리 인연에 따라서 만남이 된단 얘깁니다. 한 식구가 모였다 할 때는 고 차원대로 딱, 보는 사람도 고 차원 또 당하는 사람도 고 차원. 그러니까 고(高) 차원이 아니라 고 차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차원에 따라서 이차원끼리는 이차원끼리 만나고 삼차원은 삼차원끼리 만나고 사차원은 사차원끼리 만나. 그러니 만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깡통끼리 만났다면 쪼끔만 건드려도 와르르 부서져서 소리가 그냥 엥그랑뎅그랑 엥그랑뎅그랑 나는 거죠. 그런데 넝마끼리 만난다면 넝마는 소리는 안 나는데 내성적으로, 그저 그냥 항상 빠느라 볼일 못 보고, 꿰매느라 볼일 못 보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전부 같은 넝마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다 이겁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무슨 짓을 할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 생각 잘못하면 그 한 생각 잘못한 걸로 연관성을 가지고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원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이 없다면, 또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네가 망상을 내는 거지 딴 데서 내주는 게 아니니까, 네가 망상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놈도 바로 그놈이고, 하고 있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니 모든 것을 거기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공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해서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본래 모습이 없다면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오관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도 알게 됐고, 고상한 것도 알게 됐고 더러운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좋은 것을 참 미처 몰랐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이 몸뚱이가 있고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낼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진화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법신으로서 부처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미륵부처' 이러는 것이 미륵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올 것을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고 미륵부처라고 합니다. 본래 부처가 된 사람은 부처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앞으로 차차 부처님이 돼 나오실 것은 미륵보살이라고 하죠. 미륵부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미륵부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있다면 후대 대통령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 또는 계발을 하고, 이 천체에 어디고 걸림 없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천지 만물 다, 우리는 아주 흰 꽃처럼, 향기처럼…. 그래서 그것을 만 백화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만 백화의 향기는 바로 만민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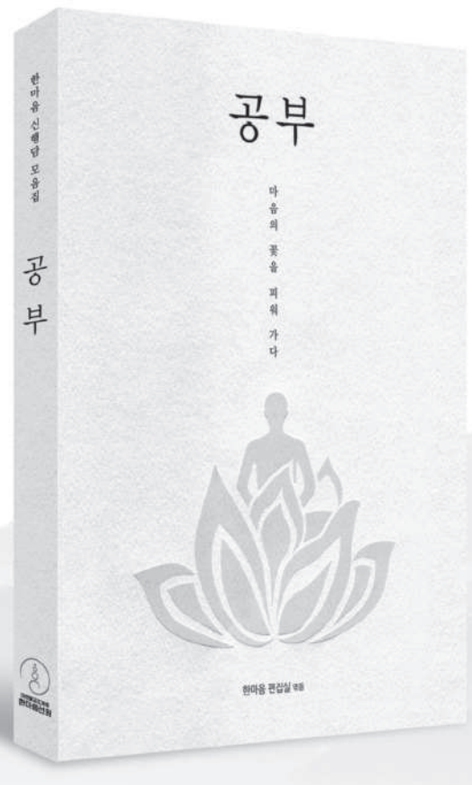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말을 시켰으니깐 하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할 때는 여기 하나도 내가 말한 예도 없고 여러분이 말 시킨 예도 없고 대답한 예도 없습니다. 모습만 다 각각이지 생명도 같아. 마음도, 또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것도 그래. 같이 이렇게, 독불장군 없으니 얼키설키해서 이 세상 살아나가니 공체고 말입니다. 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하셨다면 그 '참나'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내 이 몸이 공해서, 몸 하나 공한 것과 세상 공한 것과 둘이 아니라 전체 더불어 같이 공했으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놓으면 참자기의 그 익은 맛을 알게 되고, 한 맛을 알게 되면 만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놓으면**
**참자기의 그 익은 맛을 알게 되고**
**한 맛을 알게 되면**
**만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1월 3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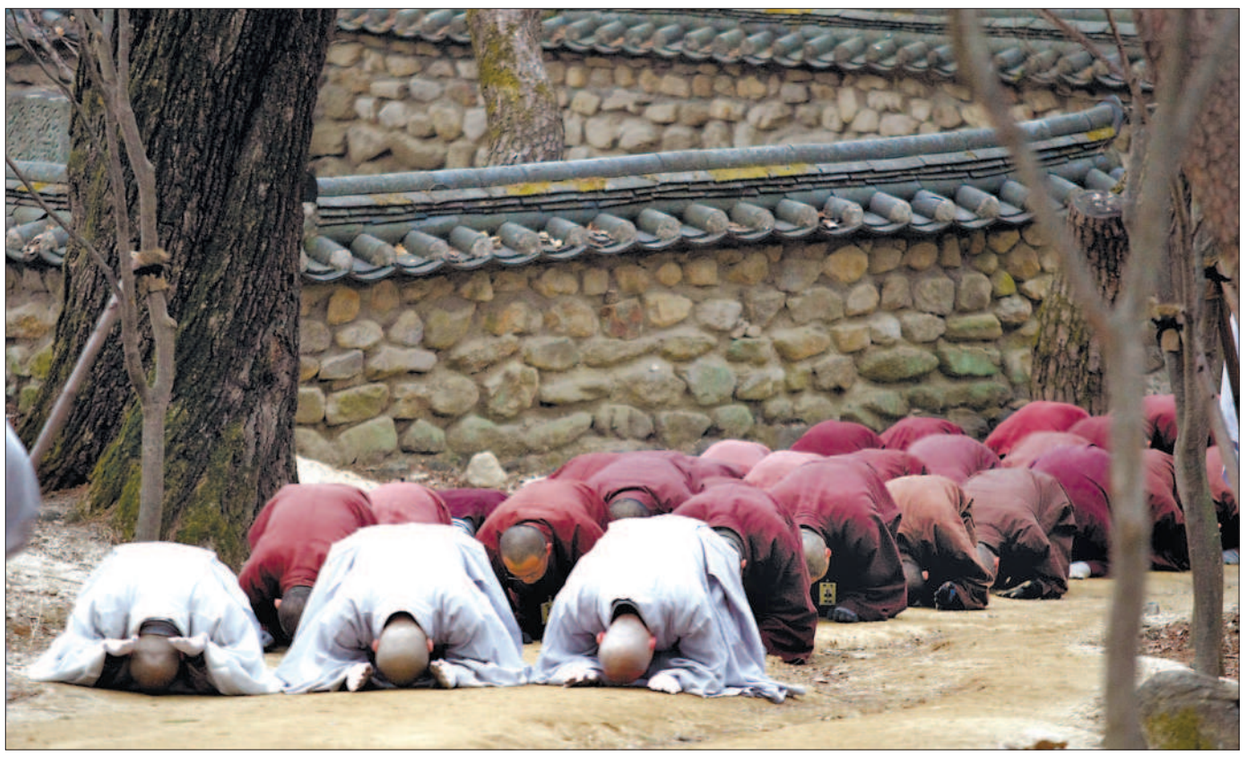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 "지금 자신의 모습이 당신 모습"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나 잘 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혜도 자비심도 각자의 한계가 다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좀 독특할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내일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열려 있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마음을 조금씩 내어 보세요.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면 가식이 될 수 있고, 너무 소극적이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성격이 조금 이상해도 괜찮아요. 불안장애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현재 자신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마음을 내어 보세요.





##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 ③ 유림굴과 돈황석굴

# 돈황, 불교예술 정수 망라하다

중국 감숙성 안서현의 남쪽 60Km에 위치한 삼위산(三危山) 기슭 답실하(踏實河)의 동서 양안에 있는 것이 바로 유림굴(榆林窟)이다. 돈황의 막고굴(莫高窟), 서천불동(西千佛洞)과 함께 이 지역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현재 동쪽 절벽의 32개굴, 서쪽 절벽의 10개 굴에 걸쳐 소상(塑像) 100여 구와 함께 벽화가 남아 있다. 유림굴은 계곡의 양안 모두에 굴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소조불상은 등신대 크기에 상호가 풍만하고 신체가 웅건하여 당대의 풍모를 느끼게 한다.

유림굴의 백미(白眉)는 6굴로 가장 큰 대불상이 있다. 대불은 성당(盛唐)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높이는 24.7m에 달하여 대불의 발과 얼굴쪽으로 각기 입구를 내어 놓았다. 이곳은 규모가 가장 커서 예불굴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우러러 바라볼수록 기가 막힌 작품이다. 우리 순례 대중들도 지도법사이신 설정 스님을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불과 반야심경, 그리고 축원을 올렸다.

이 척박한 땅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석굴을 조성케 했을까? 비단 권력자의 강권만이 아니라, 당대 민초들의 간절한 신심과 비원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까지 밀려온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정착해 살았다고 하니, 그들의 고향과 나라를 그리는 마음이 함께했다고 믿는다. 그들을 기리며 향을 사르고 삼가 명복을 빌어본다.

돈황은 기원전 117년 한무제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한나라와 당나라 시절에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남쪽 길과 북쪽 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중요한 교역로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몇 세기 동안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천축구법승이나 대상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 과정에서 막고굴같은 수천의 불상으로 이루어진 동굴유적을 꽃피울 수 있었다. 이곳 근처에는 명사산(鳴沙山)과 월아천(月牙泉), 그리고 지역방위를 위한 요새인 양관(陽關)과 옥문관(玉門關)등의 유적이 자리한다. 돈황(敦煌), 그 이름부터 휘황하고 신비롭기만 하다.

다음날 아침 돈황 막고굴로 향했다. 입구를 지나 3D 영상으로 돈황석굴의 역사와 예술에 관한 다큐를 시청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가 질리는 듯하다. 한국말을 곧잘하는 한족 가이드의 안내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석굴을 둘러보았다.

돈황석굴은 건축, 소조, 벽화라는 3개의 장르가 결합된 종합예술 전시장이다. 특히 돈황의 벽화는 역대 10개 왕조의 1000년 간에 걸친 시대별 양식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준다는 점과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특징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돈황석굴의 492개 석굴에 그려진 4만5000㎡에 달하는 벽화는 그야말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만하다. 특히 돈황 17호 석굴에서 발견된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의 존재는 가히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돈황석굴을 둘러보고는 막고굴 앞에서 혜초 스님을 비롯한 천축구법승과 돈황학의 선구자인 김구경(金九經) 박사, 그리고 조선족 화가로 돈황벽화를 모사한 한락연(韓樂然) 선생과 함께 이곳에 이주해 살았던 고구려 유민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가졌다. 특히 설정 스님께서 법주로, 혜총 스님은 바라제를 하신 것이다. 아울러 은사이신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다례일과도 맞아 대중의 양해를 구하고 함께 추모제를 올렸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가노라(讀萬卷書 破萬里程)"는 말을 몸과 마음에 새기면서 선사(先師)들의 구도열과 보살행을 길이 기억하고 기록하여 기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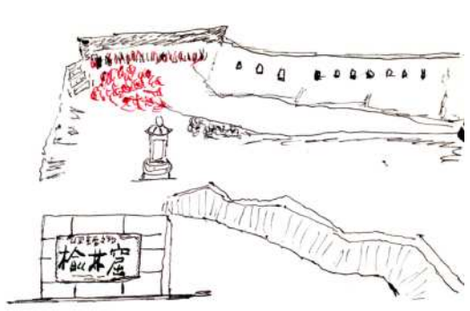
돈황석굴을 나와 명사산으로 향했다. 여행사에서 사막이라 이동이 불편해 낙타를 준비했는데, 설정 스님께서 "어찌 수행자가 낙타를 탈 수가 있으리요, 낙타는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하시며 솔선수범해 명사산 모래사막을 오르신다. 대중 스님들도 스님의 뒤를 쫓아 모래언덕을 오를 수 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역시 어른 스님의 위의와 행해는 가히 명불허전이다.

이어서 돈황 근교의 양관과 옥문관 유적을 찾아 나선다. 양관은 왕유의 시중에 "그대에게 다시 권하노니 이 술 한 잔 받게나. 서쪽 양관으로 가면 술 권할 친구도 없으리니!(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로 유명한 곳이다. 아울러 옥문관은 왕지환의 '양주사(涼州詞)' 란 시의 "이곳의 따뜻한 봄바람도 저 옥문관을 넘어서 님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하네(春風不渡玉門關)"라는 구절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풍경이 쓸쓸하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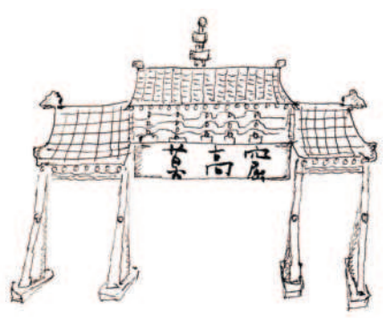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하미과(수박같이 생겨 메론 맛이 나는 과일) 파는 농장에 버스를 세웠다. 설정 스님께서 하미과 대중공양을 내신다고 한다. 그런데 직접 칼을 드시고는 하나하나 다 손수 깎아서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에 황송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이게 바로 어른 스님의 보살심이자 자비덕화가 아닌가 싶다. 덕분에 하미과는 원 없이 실컷 배가 터지도록 만발공양을 하였다.

돈황의 사막 위로 해가 지고 노을과 석양이 아름답기만 하다. '반달아래 세 별(半月下三星)'이 내 마음인양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중국의 꾸청(顧成)이란 시인은 '한 세대 사람' 이란 시에서 "어둠은 내게 검은 눈동자를 주었으나, 나는 그것으로 세상을 밝히고 싶다"라고 노래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유림굴의 전경 모습.



돈황 막고굴의 입구 모습.



돈황 막고굴의 전면 모습.

**건축 · 소조 · 벽화 종합 결정체**

**1000년간 양식 변화 보여줘**

**선현 기리며 추모재 봉행도**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청동불상 조성업체

#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행복해요
세상을 바꾸는 동행同幸

#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


##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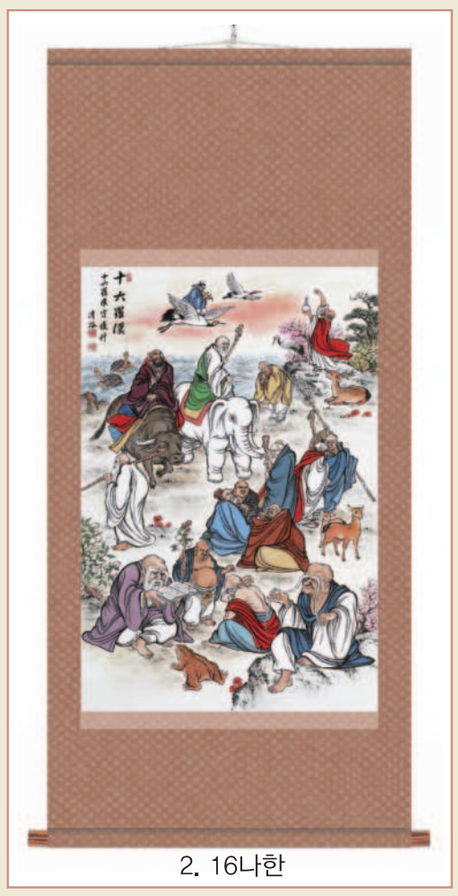
###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